

동역의 능력으로 '세계 선교' 헌신하자

제2차 세계한인침례교선교대회... 15일~18일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돼



15일부터 18일까지 네바다 주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제2차 세계한인침례교선교대회에 참석한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2차 세계한인침례교선교대회가 네바다 주 라스베가스에서 "동역의 능력"이란 주제 아래 15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됐다. 세계 곳곳에서 모인 한인 침례교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은 동역을 통해 전 세계 복음화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을 다짐했다. 이 행사에는 방글라데시, 베트남, 태국, 라오스, 중국, 인도, 독일, 터키,

브라질, 니카라과, 튀니지, 세네갈 등 전 세계에서 사역하는 선교사 65명을 포함 총 230여 명이 등록했다. 환영 만찬으로 시작된 행사는 찬양과 경배, 선교 간증 및 헌신의 시간, 주제 강의, 현장 선교사들의 선택 특강, 선교 축제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김만풍 목사(워싱턴지구침례교회),

박종철 목사(전주새소망침례교회), 이지훈 목사(뉴비전교회 원로), 최병락 목사(세미한교회), 유관재 목사(성광침례교회), 이종용 목사(코너스톤교회), 장요셉 목사(빛과소금의교회), 강승수 목사(포틀랜드열방교회), 위성교 목사(뉴라이프교회),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원로), 최성은 목사(타코마제일침례교회), 황준석

목사(큰민음제일침례교회) 등 미국과 한국의 대표적인 침례교 목회자들이 메시지를 전했고 현장 선교사들이 총 20가지의 선택특강을 인도했다. 특히 두 번째 날에는 정병윤·김선녀 선교사를 네팔로, 해밀턴 곤잘레스 선교사를 니카라과로 파송했다. 18일 선교축제를 끝으로 모든 행사가 마무리됐다. 김준형 기자

크리스천이라면 꼭 알아야 할 주기도문

자기 혼자만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자신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기도하지 마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라고 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쌓아두고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지 마라.

누구에게나 아직도 노여움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지 마라.

수시로 죄지를 기회를 찾아가니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리페어서번트

美서부지역 순회 사역

찬양집회, 음향 세미나 및 장비수리까지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느 곳든 달려가는 리페어 서번트의 마원철 목사가 美 서부지역 순회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1일부터 시작해 18일 현재 콜로라도 주 덴버에서 사역 중이며 오는 24일부터는 네바다 주 라스베가스에서 각각 사역한다. 문의는 전화)909-292-7474, 이메일) repair-servant@gmail.com, 페이스북) www.facebook.com/repairservant.



회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맨 앞줄 오른쪽으로부터) 이기미 회장과 오영교 선교사

미주기독한의사협회(회장 이기미)가 14일(주일) 저녁 마가교회(담임 오영교)에서 2월 정기 예배 및 영성 세미나를 개최했다.

미주기독한의사협회 영성 세미나 개최

오영교 선교사 초청...성령을 통한 형통요법 강의

이날 1부 정기예배에 이어 2부 영성 세미나에서는 콜로라도 주 덴버 소재 헤민한방병원 원장이며 주의손힐링터치 대표인 오영교 선교사 초청 '성령을 통한 형통요법' 주제의 영성 세미나가 진행됐다. 오 선교사는 미국과 한국은 물론, 볼리비아 등 전 세계를 돌며 많은 환우들을 치유함과 동시에 집회 인도를 통해 성령의 치유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귀한 선교사로서도 잘 알려져 있다. 오 선교사는 영성 세미나를 통해

"우리는 한의사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제자이며 도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치료 현장에서 우리의 실력과 경험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말씀을 심을 때 기적 이 일어나는 성령을 통한 형통요법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협회는 매달 둘째 주일 오후 5시부터 정기 월례예배 및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문의는 이기미 회장(213-235-7169)에게 하면 된다. 이영인 기자

나라정비 타이어 대리점
GOOD YEAR
 유럽차 전문점
 SMOG CHECK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323.734.4881 | 월~금: 8am~6pm / 토: 8am~5pm 1201 S.Western Ave, LA 웨스트턴과 12가

아이비 유학 Shelby Kwon Director
 적성검사를 통한 진로 선택의 지름길
 재능 개발·토크스, 알바인 Class (Verbal, Visual, Logical, Creative, Physical, Emotional)
 3-7-21 재능캠프
 USA Tel: (951) 383-5583
 Tel: (949) 329-8222
 Email: shelby.moon65@gmail.com
 www.Mylvydream.com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100% 천연성분 FDA IND임상

미국 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Special Price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40여 년간 당뇨 연구를 해온 대한민국 대표과학자로 한국인 최초로 미국연방 정부 지원을 받아 당뇨 신약개발을 위해 FDA 2차 임상을 진행하는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전, UCLA 의과대학 연구교수, 미 재향군인병원 수석연구원
 세계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 등재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6개월 이상 복용하시면 췌장 베타 세포의 기능 복원을 개선하는데 PRO-Z GOLD가 해결해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수만 종류의 당뇨약이나 인슐린으로 혈당유지에 그쳤으나 PRO-Z GOLD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며, 분비된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 내 몸에서 스스로 혈당을 조절하게 하는 당뇨의 근본 원인을 해결 하는 솔루션입니다. 식후 혈당 상승억제와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입니다.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셀러모집중
 송해선행님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프로지골드

“예수님 사랑 전하며 선교하는 방송될 터”

미주복음방송 창립 25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새 비전 선포



미주복음방송(사장 임덕순 장로) 창립25주년 기념 감사예배가 11일 나성동산교회에서 드러졌다.

“제3기를 맞이한 미주복음방송은 선교와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미주의 대표적인 기독교 라디오 방송국인 미주복음방송의 창립 25주년 기념 감사예배에 참석한 목회자들은 하나같이 “지금 변화의 때”라는 데에 공감했다. 방송국이 대내외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또 변화되어야 할 때라는 것이다.

이날 설교를 전한 박희민 목사는 임종희 초대사장, 황성수 초대이사장과 2대 이사장인 자신이 섬겼던 1991년부터 2003년까지를 제1기, 정상우 3대 이사장, 김영길 4대 이사장, 김영일 5대 이사장과 임종희 초대 사장, 박신욱 2대 사장, 송정명 3대 사장이 섬긴 2015년까지를 제2기라고 정리했다. 이어 4대 사장 임덕순 장로가 취임한 2015년 9월부터는 제3기가 시작됐다고 했다.

박 목사는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과 능력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일어났다”면서 “잠언 25장 13절의 말씀처럼 추수하는 날에 얼음냉수 같은 종이 되자. 지금도 목이 말라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얼음냉수 같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방송국이 되라”고 주문했다.

사장 임덕순 장로는 미주복음방송의 모토인 “예수님만 전하는 방송”에 더해 “사랑과 선교를 실천하는 방송”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임 사장 취임 이후 미주복음방송은 남가주 8개 선교 단체에 성금을 전달하고 멕시코 로사리토에서 출장 생방송을 했으며 전세계 25개국 28명 선교사들을 특파원으로 임명해 선교 소식을 전하는 등 선교에 에너지를 집중 투자하고 있다. 임 사장은 “진리가 혼탁하고 정의가 표류하는 시대에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세우고 하나님의 자녀된 소속감을 심어주는 복음과 사랑, 선교의 방송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런 비전의 일환으로 복음성가대회, 글짓기 대회, 성경필사 대회, 다민족 청년 페스티벌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내적인 변화 외에 외적인 변화도 있다. LA 한인타운 월셔와 버질 코너에 있는 현 사옥을 지난 12월에 매각하고 오렌지카운티 애너하임시의 라팔마와 매그놀리아에 신 사옥을 매입한 사실이다. 신 사옥에는 6월 말 경 입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사는 오렌지카운티로 이전되지만 현 LA 사무실도 건물주로부터 임대해 현재 위치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이날 예배에서는 부이사장 민중기 목사가 사회를 맡았고 이사장 김영일 목사가 인사의 말씀을 전했다.

이사장 한기홍 목사가 기도한 후, 박희민 목사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방송국”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한기홍 목사(나성동산교회), 이영선 목사(미주밀알선교단)가 축사했으며 임종희 목사가 동영상으로 축사를 전했다. 이사 이종용 목사가 중보기도회를 인도했고 김영길 목사가 축도했다.

또한 목사장로성가단, CTS찬양단, 시와그림의 김정석 목사 등이 찬양을 연주했다. 또 방송국 여성 직원들이 핸드벨을 연주했고 남성 직원들은 삼중창 합창을 했다.

김준형 기자

“청년들이여! 미스바로 모이자”

3월 19일, 남가주 신학생과 청년들 위한...미스바 연합기도회

남가주 한인 신학생들과 청년들의 풀뿌리 기도운동인 “미스바 연합기도회”가 열린다.

이 기도회는 오는 3월 19일 오후 1시부터 6시간 동안 그레이스미션대학교(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채플실에서 열린다. 지난해 2월 21일 제2회 기도회가 바이올라대학교 채플실에서 120여 명이 참석해 개최된 후 약 1년 만이다.

“합심하여 구하면 이루게 하시리라(마18:19-20)”는 주제 아래 열리는 이번 기도회에는 그레이스미션대학교,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베

데스대학교, 셰퍼드대학교 등 한인 중심 학교와 골든게이트신학교, 아주사대학교 등 미국 학교에 재학 중인 한인 신학생들이 중심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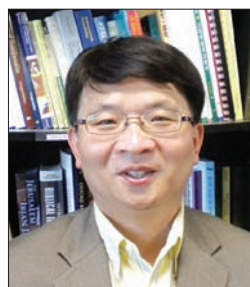
JAMA와 KCCC, 파이어드루세이드 등 1.5세, 2세 청년 중심 선교단체들도 함께 한다.

이 행사에서는 찬양과 함께 세계선교와 복음화를 위해, 북한·이스라엘·중동을 위해, 미국·한국·남가주를 위해, 교회와 영적 리더·청년과 신학생·가정을 위해 장장 6시간의 기도회가 이어진다.

▲문의) 714-315-4617

“미국에서의 대학 설립과 인가”

SAS 김만태 박사 통하면...그 절차와 규정이 쉬워진다



김만태 박사. SAS컨설팅 대표

미국에서 대학을 설립하는 일이 그 절차와 규정을 잘 이해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김만태 박사는 SAS(Summit Accreditation Solutions)라는 전문기관을 설립해서 이 분야를 컨설팅하고 있다.

미국에서 대학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마다 법이 약간 다르지만, 일단 주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나아가 연방 인가기관으로부터 학위 인가를 받아야 한다. 연방 학위 인가 없이 학교를 운영할 수도 있지만 해당 학교에서 받은 학위나 이수학점이 타 학교나 기업, 공공기관에서 인정받는 것에 많은 제한이 따른다. 김 박사는 학교 설립을 위해 주정부의 허

가를 받는 시초 과정부터 학위 인가까지 모든 과정을 컨설팅하고 진행한다. 또한 비영리 선교회와 연구소의 설립 컨설팅도 한다. 이러한 비영리기관은 IRS의 연방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그는 LA 지역의 인가받은 한인 대학 재직 당시 5년여 간 인가 부문을 전담하면서 대학 설립 인가 분야에 눈을 뜨게 됐다. 주정부와 인가기관에서 요구하는 핵심을 파악하지 못해서 오랫동안 승인이 지연되는 한인학교들을 보면서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현재까지 7-8개 학교의 주정부 및 연방 인가 과정을 도왔다. 김 박사는 “미국에서 대학을 설립, 운영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규정과 절차를 인지해야 하는데 일반 상식으로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전문가의 컨설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의: 213-531-7215

김준형 기자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입당 감사예배”



조응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가 교회 건축을 마치고 입당했다.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담임 조응철 목사)가 새 예배당에 입당하며 감사예배를 드렸다. 동시에 교회를 섬기게 될 권사들도 임직했다.

이 감사예배에는 300여 명의 하객들이 참석해 새 성전 입당을 축하하며 지역 복음화를 위한 이 교회 역할에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조응철 담임목사는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예배당 건축과 입당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면서 “이 순간까지 기도하고 헌신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리가 있을 것”이라 전했다.

이날 예배에서는 김금봉, 박현애 권사가 각각 임직했다.

한편 이 교회는 1993년 개척됐으며 1999년에 한 하우스를 개조해 예배당으로 사용해 왔다. 그러던 중 교회가 부흥하여 증축을 결심하게 됐

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도 컸고 무엇보다 비용이 문제였다. 수 차례 건축이 중단될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성도들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헌신했고 여러 교회들에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는 등의 노력을 통해 이번에 건축을 이뤄냈다.

▲문의: 702-579-7576

▲주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89146

세계기도일예배

세계 평화를 위한 전 세계 180여 개국 여성들의 기도운동인 '세계기도일예배'가 3월 첫째 주에 열

린다. 올해는 쿠바가 예배문 작성국이며 주제는 “어린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SAS 인가컨설팅 비영리단체, 선교회, 연구소, 종교특례 대학 및 일반대학 설립인가 미 전역 종합서비스

대표 Paul Kim, Ph. D summitus37@gmail.com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장재효 목사 초청 목회자 세미나

“목회 57년 돌아보니 불초한 종 쓰신 하나님 은혜뿐...”

목회 인생 반 세기를 넘겨서도 아직 전 세계를 돌며 제자를 세우는 장재효 목사 (서울 성은교회 담임)

주제: 구령성과 위한 바른 목회 특별세미나

- 2월 19(금) 오후 7:30
 - 2월 20(토) 오전 5:30
 - 2월 21(일) 오전 8:00
 - 2월 21(일) 오전 11:00
- 한마음 제자교회 (박부환 목사)

- 2월 23(화) 오전 11:00 여성목사회 주최 특강 한우리장로교회(강지원 목사)
- 2월 28(일) 오전 11:30 남가주임마누엘교회(박용일 목사)

집회 문의: (213)739-0403, (213)434-1170 주최: 성은 바른목회 연구원



장재효 목사 서울 성은교회 담임

후원 : 남가주한인목사회, 기독교방송, 복음방송, 남가주여성목사회, Cts 기독교방송, 기독교일보



PCUSA 놀스웨스트코스트 노회장에 선출된 권준 목사를 위해 노회원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다.



소중한교회 청년들과 함께 한 강훈 목사(앞줄 정중앙).

“복음 붙들고 미국과 교단 영적 개혁 앞장 설 것”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미국장로교 놀스웨스트코스트 노회장으로 선출돼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가 미국장로교(PCUSA) 놀스웨스트코스트 노회의 노회장으로 선출됐다. 미국 장로교 놀스웨스트 코스트 노회에서 한인교회 목회자가 노회장으로 선출된 것은 노회 사상 처음이다. 11일, 권 목사는 케스케이드부장로교회에서 열린 정기노회에서 노회 소속 55개 교회 노회원들의 환영을 받으며 노회장에 선출됐다. 권 목사는 "노회장에 출마하고 미

국교회를 섬기기로 결정한 것은 이제 한인교회가 더 이상 미국 교단에 속한 한인교회에 머물지 않고, 교단에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시기이기 때문"이라며 "미국장로교 내부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한인교회를 미국에 심어두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가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 미국을 살리는 것

이라며 "미국교회의 중심에서 복음의 본질을 일깨우고, 미국의 영적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놀스웨스트코스트노회는 시애틀 북부지역인 스노호미 시, 알래스카 남부, 워싱턴 주 중부와 동부 지역의 미국장로교회 연합으로 교단 내에서도 복음적이고 선교가 활발한 노회로 알려져 있다. 권 목사는 1년 동안 노회장으로 섬기게 된다. 김브라이언 기자

“찬양으로 하나님 섬겨요”

청소년 멘토링 브릿지 위한 ...강훈 목사 LA지역 찬양 집회

멘토링 브릿지 사역으로 더 잘 알려진 찬양 사역자 강훈 목사가 이곳 LA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요리에도 탁월한 소질이 있는 강목사는 펍북이 푸드트럭을 운영하며 거리 청소년들에게 한 끼 식사를 무료로 제공해 주고 있다. 이 청소년들은 대부분 가정불화로 가출했다거나 돌봐 줄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다. 이들은 갈 곳 잃고 거리를 방황하다가 배고픔과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범죄를 저지르게 된

다. 이를 안타깝게 여겨 시작된 푸드트럭이 이제 육의 양식뿐 아니라 영의 양식도 공급하는 청소년 멘토링 브릿지 사역으로까지 지경을 넓혀가고 있다. ▲집회 문의: 818-318-6484 ▲집회일정: 19일(금) 저녁 시미밸리한인침례교회(4868 Cochran St, Simi Valley, CA 93063)/21일(주일) 오전 LAWorship교회(1611 Cordova St, Los Angeles, CA 90007) 이영인 기자

“성령 충만으로 영혼구원 목회해야”

장재효 목사 초청...구령성과 위한 바른 목회 특별 세미나 열려

서울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초청 “구령성과 위한 바른 목회 특별세미나”가 15일 성은바른목회연구원 주최로 남가주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열렸다. 이 행사는 남가주한인목사회, 기독교방송, 미주복음방송, 남가주여성목사회, CTS기독교TV, 기독일보 등이 함께 후원했다. 장재효 목사는 80세가 넘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 세계를 돌며 왕성하게 복음화장을 위한 세계선교와 목회에 헌신하고 있다. 장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국제신학대학원 초대총장, 바른목회연구원장, 전국기도원총연합회 총재, 성령세계복음화협의회 총재, 선목회 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한국일보 2009 대한민국

국민감동 대상, 시사투데이 주관 ‘2012 올해의 신한국인 대상도 수상한 바 있다. 장 목사가 개척한 성은교회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 단칸방에서 시작해 현재는 송파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로 성장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장 목사는 “요즘 반기독교 세력의 기독교 공격이 거세다”고 말한 후 “목회자들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상전처령 행세하고 올바른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말했다. 장 목사는 “세상의 비난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시므이의 저주를 대하는 다윗의 태도에서 배우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해 우리를 저주하게 하신 것이다. 오늘 이 저주 때문에 하나님이 선으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초청 세미나가 남가주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열렸다.

로 갚아주실 것이라 믿자”고 했다. 또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 창자를 끊는 마음으로 죄를 뉘우치며 반성하자”고 했다. 그는 올바른 목회의 모범으로 나단 선지자를 꼽았다. 범죄한 다윗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 다윗이 회개하게 됐고, 그로 인해 다윗은 물

론, 이스라엘까지 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장 목사는 성령의 역할을 강조했다. 영혼구원을 위해서는 목회자나 성도나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장 목사는 “성령으로 충만했던 다윗도 죄를 범하자 성령이 떠났다.

목회자들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교회 크기가 아니라 바로 지옥에 갈 영혼을 천국 들어갈 자격을 갖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양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준형 기자

천천히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푸엔테 힐스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213-389-8275
520 S. Virgil Ave., #305 Los Angeles, CA 90020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대)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Welcome to a better world

모든 사용자를 만족시키는 업무 효율의 혁신

KONICA MINOLTA bizhub

최첨단 고해상도 칼라 디지털 복합기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크
최고의 인쇄 품질과 획기적인 비용절감

Green M. Wild IMAGE SYSTEMS
Sales Representative: Eric Kim
GreenMWild@Gmail.com
TEL : 213 705 7778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Used printers trade in & purchasing

bizhub C554e / C454e / C364e / C284e / C224e

C554e Colour B&W 56/55 ppm	C454e Colour B&W 45/45 ppm	C364e Colour B&W 36/36 ppm	C284e Colour B&W 28/28 ppm	C224e Colour B&W 22/22 ppm	Dual Scan ADF 160-ppm Duplex	Dual Scan ADF 80-ppm Simplex	USB Print	Colour Internet Fax	Mobile Support
-------------------------------------	-------------------------------------	-------------------------------------	-------------------------------------	-------------------------------------	------------------------------------	------------------------------------	-----------	---------------------	----------------

Simitri bizhub Marketplace

**한국 기독교 신문
기자단이 뽑은
최고의 목회자**
♣
**서울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시사투데이 주관 2012 신한국인대상을 받은 당회장 장재효 목사 축하를 위해 서울 성은교회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한다”

‘한국 기독교신문기자단이 뽑은 최고의 목회자, 한국교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서울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그의 저서 ‘말씀에 이끌리며 성령께 쓰임받자’를 중심으로 한 일문 일답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반세기 넘도록 지역주민과 소외계층을 섬기는 목회와 선교활동에 헌신해 오셨다. 독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성경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하셨으니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로 몸은 흙으로 영은 하나님께서 불어 넣어 주신 생기로 인간은 영육의 합성체로 만들어 졌다.

이사야 45장 22절에 “땅 끝의 모든 백성이 나를 앙망(仰望)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속에 죄 값으로 멸망의 길에 몰려가는 불행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내용은 죄 없으신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사람으로 동정 탄생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계시와 조명 체험과 감동 등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자신이 죄 값으로 지옥가고 있음을 직시하게 하시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믿어지게 하심으로 철저하고 온전한 회개를 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보혜사)을 파송해 주시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주셨다.

예레미야애가 3장 39절에도 “살아 있는 사람은 자기죄로 벌을 만나니 어찌 원망하라”라고 했다. 사람들의 모든 실패와 절망, 고통과 근심, 질병과 죽음에 시달리는 불행의 원인은 죄 값이다. 인류의 불행은 죄 값의 결과임을 깨닫고 예수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보살피심으로 소망 중에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당부한다.

▶저서 ‘말씀에 이끌리며 성령께 쓰임받자’를 출간했다. 출간 동기는 무엇인가.

▷성경은 약 1600년에 걸쳐 성령으로 사로잡아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받아 대언했거나 기록하게 하신 권세와 능력이 수반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담으로부터 전가 받은 원죄와 각자가 지은 자범죄로 마귀에게 이끌려 지옥길에 빠져들고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2차대전 이후 70년 동안 신학도 다양하게 변천해 왔으며 따라서 신앙도 추종적 신학노선에 따라 칼빈주의를 비롯 웨슬리안주의, 알미니안주의, 자유주의, 신정통주의, 신정통복음주의 등으로 각각 다르게 진행되어 가다가 하면 근간엔 종교 다원화 시대라며 생명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권능 있는 말씀의 진리를 사람들이 만든 세상 종교들과 같은 류로 취급하려는 신학자나 교회들이 있어 참으로 안타깝고 두렵기 그지없다.

차체에 진리정통하고 성령 충만하여 오로지 구령성과만을 위한 교회와 선교가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회개와 중생(重生), 영적체질 신앙으로 오로지 하늘 소망을 목적하는 교회를 세우고 선교확장을 통한 인류 복음화의 날을 앞당기길 바란다.

인본주의 신학 추세로 교회가 세속화되어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신 정통한 진리의 교회는 말씀에 이끌리며 성령께 쓰임 받아 구령성과를 위해 합심전력하면 성령께서 이끌어 온갖 죄악으로 생지옥이 되어가는 흑암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할 것이다.

▶책에서 “부흥하는 교회는 기도가 끊이지 않는다”라고 기술하고 있

다. 한국교회의 위기상황과 타계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 해주신다면.

▷첫째, 한국교회는 영적위기임을 자각해야 한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서 120여 명이 오순절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대언했던 말씀은 구약의 절기인 칠칠절을 지키리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이 모였는데 그들은 약 16개국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로 그 나라 말을 사용하며 생활했는데 성령으로 대언하는 말씀이 각각 자기 나라말로 들을 수 있었다는 사실은 성령 받은 사람에게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서둘러 전파되고 따라서 회개와 신앙고백으로 구원 얻는 성과를 하나님께서 그토록 열망 하셨기 때문일 것이다.

이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설교한 베드로의 설교는 그 자신은 갈릴리 사투리로 선포 했었는데 듣는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 역사가 일어났고 베드로의 권면에 따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했다.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으로 대언하게 하신 설교(하나님의 말씀)는 권세와 능력이 수반되었던 것이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침체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기진맥진해 가는 것은 강단에서 외치는 설교가 성령의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아니고 목회자 개인의 신학적 편견이나 자신의 목적내지 이권을 위하여 지어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

라고 거짓되이 포장해서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진정한 회개 역사도 영적중생의 체험도 성령 충만과 그리스도 나라 확장을 위하여 간절한 기도의 모습마저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다.

둘째, 기도의 승리다. 사도행전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 하여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베드로의 영감적 설교로 회개하고 성령 받은 3천명은 그 성령에 이끌려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영적 성숙을 힘쓰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고 했으니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의 기도는 3분하고 나면 할 말이 없다고들 하지만 성령에 이끌리는 기도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으로 더욱 깊어지기를 힘써 간구하게 마련이다.

셋째, 한국교회의 재건을 위한 간청이다. 영적으로 메말라 가는 한국교회는 인위적인 노력이나 인본주의 수단으로는 회복이 불가하다. 스가라 4장 6절에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톱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셨는데 힘(하일/might), 능(코아흐/power) 이상 두 가지는 사람의 힘이나 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없으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신(루아흐) 곧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뜻이기에 모든 목회자들은

철저한 회개로 죄사함을 받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은사와 영력을 힘입어 신도들을 영적 구원을 얻게 하여 그리스도의 나라 확장에 힘써야 할 것이다.

▶책 마지막 부분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라는 턱을 넘어서야만 한다”라고 쓰여 있는데 풀이하면.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감동과 책망을 따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할지라도 세속적 생활 습관이 너무나 숙달되어 왔기 때문에 성령님의 지시나 욕구, 반대로 육체의 본능적 욕구와 습관, 이 두가지 입장이 상충하는 경우가 있기 마련이다.

자기라고 하는 기준이 영적 자기인지 육적 자기인지를 엄격하고 철저히 구분지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신 말씀을 꼭 실현하며 살기를 바란다.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당부는.

▷이단 사설이 난무하고 영계가 혼란해도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깨닫게 믿어지게 하심으로 구원 결실하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하자.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해성
발행인 : 이인규
지사명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국제 23기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평신도를 깨운다”

주강사 **오정현** 목사 (사랑의교회 담임)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
강사 강명옥 전도사, 박주성 목사, 김홍장 전도사

일시 2016년 4월 18일(월) - 4월 23일(토)
장소 남가주사랑의교회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상 현 이민 교회 담임목사 및 부교역자
(담임목사 참가시 부교역자도 참석 가능)

등록서류 신청서, 주보, 사진 1매
등록마감 2016년 3월 21일(월)
등록비 \$390(숙식 및 강의안 포함)
등록처 국제제자훈련원(T.714 635 3000)

가이오, 책망의 디오드레베

요한3서 1:11-15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요한삼서는 사도 요한이 성령의 유기적 영감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나머지 요한1, 2서와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함께 기록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3서를 시작하면서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지금 우리가 부르는 장로와 조금 다릅니다. 그 당시의 장로는 하나님을 기쁨 부어 성령으로 사로잡히게 하시고, 성령계 이끌리며 구령 성과를 위하여 복음도 전하고, 목회도 하게 하였던 사도들을 일컬어 장로라고 했습니다.

1. 목자님 사도 요한의 심정

오늘 말씀은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사적으로 보낸 편지 같지만, 이 편지의 내용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역사의 끝날까지 이 땅위에 있게 될 모든 교회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2절) 이것은 사도 요한이 성령의 계시와 감동에 의해 우려난 표현의 기록입니다. 사도 요한은 왜 가이오라는 사람을 이렇게 알뜰하게 여깁니까? 그 다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3절) 성령에 사로잡혀서 생명 살리는 사역을 위하여 쓰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종들은 예나 지금이나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 그 영혼이 할 소망을 가꾸며 진리 안에서 행하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형제들이 와서 가이오에 대해 이야기 하는 말에 귀 기울이게 되고, 가이오가 애쓰고 수고하는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파하기 위하여 애쓰는 수고였다는 사실을 듣게 될 때, 내가 너를 심히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자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고백하기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4절)라고 하였습니다.

2. 칭찬 받는 가이오

그 다음에 5절부터 보면 가이오가 왜 사도 요한의 즐거움이 되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진실한 일이니” 그때 사도 요한은 에베소교회를 거점으로 사역하면서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 복음 확장을 애쓰는 중,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자기 생업과 직장에 중단하고, 가족도 그대로 버려둔 채 성령에 이끌려서 유럽과 아시아 여러 지역으로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이 사람들을 순회 전도자라고 했습니다. 자비량으로 선교하였는데 이 사람들의 열심이 특심하다 보니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전도는 계속되어집니다. 전도 중에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개 쫓기듯이 쫓겨나기

도 하고, 여러 날 입에 풀칠을 못한 채 굶주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린 창자를 부둥켜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전도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한 목숨 기꺼이 제물로 바치리라는 각오로 다니다 보니 돈이 다 떨어지고, 의복도 헤어져 못쓰게 되고, 신발도 망가졌습니다. 이제 몹시 지쳐 힘들었을 때에 이 가이오가 여관과 식당을 운영했는데 그곳을 찾아갑니다. 그 집에 가면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듯 그렇게 반갑게 맞이합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다른 순회 전도자들처럼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지 못할지라도 자기는 여관과 식당을 경영하면서 여러 교회로부터 파송 받아 순회전도나 온 사람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집에 모셔 들이고는 그저 씻기고, 편히 쉬게 하고, 몸보신 시켜서 먹였습니다. 건강이 회복되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전도의 사명을 다짐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가이오는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순회전도자들을 보살피고 뒷바라지 하라는 사명을 받았으니, 이 사명을 위해서 힘쓰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자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전도해야 할 몫을 전도자들이 대신 감당해 주는 것이 진심으로 고마워서 전도자들을 돕는 것이 손해가 아니고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도 여행자를 통하여 구원 얻게 되는 숫자가 늘어날 때마다 그들의 수고와 함께 가이오도 그들을 지원함으로 전도사역에 동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별같이 빛나는 보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순회전도여행자들이 자기 교회로 돌아옵니다. 교회 앞에서 전도 여행의 과정과 그 성과를 보고하게 될 때, 보고하는 사람들마다 이 가이오에 대한 칭찬이 입에 침이 마를 정도였습니다. 그 교회 목회자였던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나 간절했고, 너무나 고마웠고, 또 이런 사람이면 하나님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리셔서 세계 선교에 더 요긴한 역할로 구령의 성과가 넘치도록 영광 돌리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편지하면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되고, 내가 계속 건강해서 오래오래 이런 역할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분을 세우고 성과로 영광 돌리기를 내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3. 책망 받는 디오드레베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리므로 내가 가

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꾀문하고도 유위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급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9-10절) 앞에서는 칭찬 받는 가이오였고, 이번에는 책망 받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어느 교회를 맡아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불행하게도 성령을 받지 못했고, 진리를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 간다면 그 교회는 하늘나라 갈 사람을 단 한 사람도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람의 생각, 말, 행동은 자기중심으로 이기적이고, 명분과 실속 챙기기에 급급해서 교회를 자기 것으로 관리하며, 최대한 이용해 먹자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사도 요한의 평가는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디오드레베는 우리를 접대하지 않았다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들까지 교회에서 내쫓았다는 것입니다. 이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않고 책벌하겠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11절)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므로 성령에 이끌려 쓰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고, 알아보지 못했고, 믿어 살지도 않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지만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치 않고 속히 만나 보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이오를 향한 기대가 넘치고, 너무나 소중하고 보배로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가

이오를 만나본 일이 없지만 자기 양떼들이 순회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보고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칭찬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도 여행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요긴한 역할로 봉사하는 가이오가 그토록 존귀하고 보배로웠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계속 잘 되기를 기도하고, 또 내가 건강해서 오래오래 살며 이런 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전도하는 일에 요긴히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통해 뚜렷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말씀은 오늘 이 시간에도 실행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 즉, 성령의 은사와 영력으로 무장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교회로부터 온 유대 땅, 그 유대 땅을 벗어나서 사마리아, 또 거기도 복음 전하고 벗어나서 땅 끝까지, 지구촌 구석구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참여하기를 힘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랑과 은총의 대상이 될 것이고, 전도하는 일에 관심도 없고 자기 배만 채우기 위하여 전도나 선교를 훼방하는 비협조적인 태도는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재촉하는 사람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 다니지만 지옥 갈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칭찬의 가이오, 반대로 책망의 디오드레베 둘 중에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 이 시간 양심으로 각자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 국 신 문 설 교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희소식

Super store 푸엔테힐스에서만 드리는

중·소형 교회 목회자를 위한 자동차 특별 리스

'패스터 패키지'(Pastor Package)

크레딧이 없거나 나빠도 OK!
중,소형 목회자를 위한 원가세일!



차종 : 엘란트라, 소나타, 중고차
구입서류 : 목회자 증명서, 현재 목회하고 있는 교회 주보, 소득증명서

P-H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Tel. (213)276-8959(찰리 정)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Dealer Tel. 1-880-850-2077



찰리 정

Christian Preschool 원장 초빙

2016학기 Christian Preschool 자체운영과 관련하여 원장을 초빙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린이들을 돌보며 Preschool 운영에 열정을 가지신 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자격: 원장 Director License 소지자
State Policy 규정에 의해 Preschool 운영에
결격사유가 없는 유경험자
한국어 / 영어 Bilingual 필수

제출서류: 이력서, 신앙고백서, 자기소개서

제출처: 선한목자교회
우편접수: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이메일접수: info@sunhanchurch.com

문의: (909) 591-6500



www.sunhanchurch.com

토브 성경 연구 Tov Bible Study



강신권 목사

- 히브리식 사고 : 3통 사고
- 히브리식 체현 : 5특체현으로 성경 원전 해석
- 현재 : 요한계시록 특강(매주 수요일 7:30pm)
- 강사 : 강신권 목사
- 장소 : WBPC 세계성경장로교회

Tel(562)761-5242
Tel(213)739-0403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담임목사청빙

남가주새소망교회는 Los Angeles 근교 Rosemead시에 위치한 건강한 독립 장로교회로서 담임목사를 청빙합니다.

- 자격:**
- 1) 정규 신학대학원 졸업자 (M. Div.)
 - 2) 복미주 목회 경력 3년 이상
 - 3) 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 소유

- 제출서류:**
- 1) 이력서(e-mail, 연락처, 가족사진 포함)
 - 2) 학위(졸업)증명서 및 안수 증명서
 - 3) 목회 비전서
 - 4) 최근 설교 2편(CD, DVD, MP3중 택1)
 - 5) 추천서 2통

- 마감일: 2016년 3월 6일**
- 1) 제출처: 청빙위원회, 50 S. Rosemead Blvd., Pasadena California, CA 91107
 - 2) Email: nhcscben@gmail.com
 - 3) Website: newhopechurchla.com

• 서류 심사 후 개별 통지하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교육칼럼

십대 자녀 바로 세우기(2)



제이슨 송 교장
새언약초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동시에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 한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의 문제를 접한다.

첫째, 신체 및 심리적 변화에 예민하다. 청소년의 몸은 빠르게 성장하며 변한다. 동시에 호르몬 작용으로 인해 얼굴에 여드름이 나고, 개기를 냄새도 나며, 남여의 분명한 차이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게 신체가 발달된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들은 “내 키가 더 클까?” “키가 너무 큰 건 아닌가?” “왜 이렇게 내 코가 납작하지?” “쌍꺼풀 수술을 할까 말까?” “내 친구들이 나의 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등의 질문이 항상 마음속에 맴돌고 있다. 분명 이런 궁금증은 청소년들의 정체성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심리적 성장도 급작스럽게 일어나기에 십대는 어린 시절과 달리 추상적인 사고, 예를 들어 정직, 신뢰, 정의, 공평함, 옳고 그름, 전쟁이 왜 일어나는가, 왜 부모는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가 등의 생각을 한다.

둘째, 청소년은 이전과 달리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질문한다. 십대는 부모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며, 어렸을 때와는 그 생각을 달리 표현하는데, 이것은 마치 부모와 논쟁하려는 것 같이 보인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생각 표현이 정신적 “힘” 또는 “근육”을 과시하는 것 같기에 부모와 힘겨루기를 하는 것 같이 보인다. 이 세상 거의 모든 청소년들은 자신이 부모보다 더 많은 것을 터득했다고 착각한다. 특히 컴퓨터나 셀폰에 익숙하지 못한 부모는 십대 자녀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기도 한다. 또, 부모/어른이 비논리적인 경우, 어떤 청소년은 그것을 지적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말한다. 친구를 사귀는 때도 복장이나 외모나 취미를 따지기 보다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이를 친구로 인정한다.

셋째, 청소년들은 윤리와 가치를 따지기 시작하며, 부모가 전해 온 가치관을 검사하고, 지금까지 믿어온 것을 계속 믿을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 곰곰히 생각한다. 자녀가 청소년 시절 교회나 부모의 신앙을 거부하든지, 아니면 심각히 따져보는 것은 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다. 이것을 부모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자녀와 자주 부딪히게 되며, 자녀로 하여금 부모의 신앙내지 신조를 거부하게 만든다. 만약 십대 자녀가 부모의 종교나 믿음, 그리고 가치관과 다른 입장을 주장한다면, 절대 인성을 높이지 말고, 차분히 대화로 부모의 입장을 전달하고, 자녀가 계속 마음을 열고 부모의 가치관과 윤리, 신앙을 이해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부모가 대화의 창을 열어놓지 않으면, 십대 자녀는 부모로부터 거절받았다 생각하며, 자신과 비슷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집단, 단체, 그리고 정보를 찾는다.

넷째, 청소년들은 성과 결혼에 대해 생각한다. 그들은 자신의 성(性)적 정체에 대해 많은 질문을 갖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 이성 친구를 대해야 할지 잘 모르기에 상상을 하고, 때론 영화나 뮤직 비디오에 나오는 모습을 모델로 삼기도 한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86%의 청소년들은 장래에 결혼해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미고 싶어한다고 한다. 참 정상적이고

다행스러운 생각이 아닐 수 없다. 그렇기에, 부모는 가정 안 대화 가운데 성, 데이트, 결혼 등의 주제를 다루어야 하며, 피하거나 꺼려해서는 안된다. 필요하다면 좋은 웹사이트(예: Focus on the Family)나 책(Every Young Man's Battle)을 제공하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안전하고 따뜻하게 가르치는 교회 주일학교나 청소년부에 참여하도록 권장해서 그 썬클안에서 이성에 대해 배우게 하는 것도 좋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은 장래에 대한 질문과 걱정을 많이 한다. 청소년은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한다. 이것은 그저 일이나 직업에 대한 질문이 아니다. 이 질문은 정말 영적인 질문이요,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질문이라 할 수 있다. 내가 내 삶 전부를 투자할만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행복할까? 내가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물론, 이런 질문은 중, 단 기적 질문으로 연결된다: 대학에 갈 것인가, 아니면 군대나 직업같은 다른 진로를 택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과 걱정 등에 대해 부모가 경험을 나눠 주거나, 주위 친지들의 선택에 대해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절대 사촌이나 형제와 비교해선 안된다. 또한, 부모가 원하는 대학, 전공 과목, 커리어를 강요해서도 안된다. 특종직업(예: 소방관, 경찰)에 관심을 보이는 학생은 주니어 프로그램이나 인턴십, 자원봉사를 통해 체험하도록 하는 것도 좋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 즉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고 따르도록 권장하는 것이다.

십대 시절이란 참 혼란스러운 시간이다. 쉽게 방향을 잃을 수 있기에, 좋은 교사, 좋은 부모, 그리고 좋은 어른들이 십대를 가르치고, 멘토링하고, 섬겨서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도와야겠다.

사순절에 꼭 기억해야 할 것



정우성 목사
남가주광영교회

버리셨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삼일 만에 예수님을 살리셨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유일한 복음이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에 있다. 2월 10일부터 시작하여 3월 26일에 마치고, 3월 27일 부활 주일을 맞는다. 이 기간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죄를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과 기도, 절제와 섬김과 나눔으로 나가는 것이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것을 다시 기억하며 묵상하는 기간이다.

구원의 즐거움과 복음의 감격을 잊어버린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이 기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통한 치유와 회복을 통해 인생의 즐거움과 예수님은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는 날들이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를 붙잡으면 천국으로 옮겨진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죽음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았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 가지 죽음에서 세 가지 생명으로 바뀌어졌다. 영적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 이것을 중생 혹은 거듭남이라고 말한다. 육체적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부활이라고 한다. 영적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영생이라고 한다.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초대한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한 가지를 꼭 잊지 마라.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구원자시라는 것.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예수님을 영원히 기억하며 감사하자.

아지 하는 생각을 떠올릴 시간이 있겠는가?
설교 제목은 잊어도 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깜박 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다.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다.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이다.
성경은 세 가지의 죽음이 있다고 말한다. 육체적 죽음, 영적 죽음, 영원한 죽음이다. 죽음은 '분리'를 가리킨다. 육체적인 죽음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의 분리,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를 말한다.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 천국으로부터의 영원한 분리인 지옥행이다.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이 세 가지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예외 없는 모든 인간의 비참한 형편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이 세 가지 죽음을 당하셨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죽음을 당하셨다. 십자가 상에서 완전히 죽으시고 삼일 동안 무덤에 계셨다.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영적 죽음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한 아파트 같은 층 마주보는 위치에 거주하는 어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었다. 일 이년을 이웃에 살면서 영겁결에 몇 번을 지나치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할아버지의 마음에 앞집 할머니가 들어오게 됐다. 그러던 어느날, 이 할아버지가 그 할머니를 찾아가 청혼을 했다. 그리고 돌아와 며칠 동안 대답을 기다리는데, “가만... 그 할머니가 “Yes” 라고 했는지, “No”라고 했는지 도무지 생각이 나질 않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병어리 냉가슴 앓듯 며칠을 끙끙거리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다시 그 집 뽕을 눌렀다. 너무나 조심스럽게 “내가 그날... 당신한테 구혼을 했는데..... 뭐라 하셨는지.....” 그랬더니 그 할머니 말씀 “안 그래도 누군가 나한테 청혼을 했는데 그게 누군가..? 하고 고민 중이었다” 했더라.

교인이라는 명찰을 달고 다니면서도 수시로 잊고 지내는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건강증’을 향해 일침을 가한 비유일 것이다.

지난 주일날 예배 참석은 기억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설교 제목은 기억나지 않는지는 않는가? 사실 한 주일이 아니라 주일 예배를 마치고 교회당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잊어버린 것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해야 할 일이 자주 보이는 것이다. 그것을 좇아가는 것이다. 전화 온 것 체크하고 리턴콜하라, 집안일 하라, 퇴근하고 집에 오면 식사후 신문보고 뉴스보라, 스마트폰 수시로 보고 이메일 체크하라, 카카오톡 받고 보내라 등 우리들은 할 일이 너무 많다.

그 와중에 무슨 하나님의 임재라든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

제97주년 삼일절 기념 예배 및 사랑의 결혼식 후원 음악회

The 97th 3.1 Movement Commemorative Ceremony







설교 민중기 목사
오ργαν독주 이혜경



회장 엄규서 목사
클라리넷 백철



음악감독 이경호 목사
소프라노 최정원



독창 윤에스터
독창 윤에스터



테너 오위영



Young Angeles Choir



에버그린여성합창단



목사장로부부합창단



LA남성선교합창단



한아름합창단



Los Angeles Christian Singers

Feb. 27. Saturday, 2016, 6:30PM

Wilshire United Methodist Church

월셔연합감리교회 435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문의

(949) 705-7879

(213) 820-9414



남가주한인목사회

Southern California Korean Ministers Association

President, Rev. Kyu Su Um, Ph.D.

후원 및 광고 문의 Tel: (213) 820-9414 • (949) 705-7879

보내실 주소: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Pay to Order: SCKMA

*티켓에 있는 번호를 추첨하여 상품을 증정합니다.

후원: LA한인회, 한인동포재단, 미주3.1여성동지회,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OC여성목사회
 국민일보, 미주크리스천신문, 기독일보, 크리스천헤럴드, 크리스천투데이, 미주우리방송,
 한아름합창단, 에버그린여성합창단, LA남성선교합창단, LACS합창단, 목사장로부부합창단,
 남가주장로협의회

하나님의 구원 계획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칠십 이레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단 9:24)

미주 목회자를 위한 특별 성경 세미나

일시: 2016년 3월 1일~3월 2일 오전 9:30~오후 11:30

장소: 한미장로교회

929 S. Westlake Ave., Los Angeles, CA 90006



초청강사: 라흥채 목사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저자

강사이력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 미국테네코 석유회사 근무
- 미국 휴스턴 신학교
- 미국 베다니 신학교 석사과정 수료
- 미국 베다니 신학교 박사과정 수료
- 미국 베다니 신학교 신학박사(Ph.D)
- 현 뉴욕만민제자교회 담임



엄규서 목사

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주소:P.O.Box 610179 Bayside, NY 11361

Email: gpscenter2014@gmail.com

주관: 남가주한인목사회 (엄규서 목사)

협찬: 남가주여성목사회, O.C여성목사회, 미주크리스천, 크리스천비전 기독일보
크리스천투데이, 국민일보, 크리스천헤럴드, 우리복음방송, Ch TV



서명자들이 늘어난 가운데, 이종운 목사가 성명을 낭독하고 있다.



15차 북한구원 금식성회가 경기도 수원외의 흰돌산수양관에서 열리고 있다.

“북핵 폐기 단호히 결단해야”

기독교계 등 각계 지도자들... '북핵 폐기 천만인 서명운동' 기자회견

기독교계를 포함한 각계 지도자들이 '북핵 폐기 천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하고, 17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과거 서명운동을 통해 한미연합사 해체 반대 주장을 관철시켰듯이, 북핵도 폐기하고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서명운동은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대한민국성우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자유총연맹, 대한노인회, 선진화시민행동 등이 주도하고 있으며, 특히 이종운 목사(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상임대표), 김삼환 목사(명성교회 원로), 양병희 목사(한교연 전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한기총 대표회장), 립인식 목사(통합

측 증경총회장) 등이 기독교계 인사들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236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이종운 목사가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시국에 대해 "대한민국은 김정은 정권에게 생존을 송두리째 위협당하는, 사실상 비상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며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의 안이한 태도를 철저히 반성하고 북핵 폐기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단호한 결단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평화협정'에 대해서는 "북한을 핵보유국가로 인정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한 마디로 한국의 안보를 해체시키는 협정일 뿐"이라며 "그 다음 수순은 적화통일이 불을 보듯 명백한 일"이

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들은 △'공포의 균형' 정책을 추구해서 북한이 우리에게 절대로 핵을 사용할 수 없게 할 것 △국제사회가 강력한 대북 경제 제재를 할 수 있게 할 것 △북한의 체제 변화를 강력히 유도할 것 △안이한 태도를 버리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북핵을 폐기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를 만들 것 등을 촉구했다. 그 중에서도 '공포의 균형'에 대해서는 "미국의 핵우산 보장을 조약형태로 전환해 전술핵의 재배치, 미국 핵잠수함의 한반도 해역 상시 배치로 구체화해야 한다"며 "전술핵도 유럽처럼 관리와 사용 결정에 우리도 참여하는 통제권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류재광 기자

“다음세대를 세워야 한다”

15차 북한구원 금식성회... '하나님의 소원, 통일' 주제로 열려

제15차 북한구원금식성회가 15일부터 20일까지 열린다. 이윤희 에스터기도운동 대표는 전국에서 모인 참가자들을 환한 얼굴로 맞으며 "이 성회를 위해 40일 동안 스태프들과 특별 철야를 했다. 동족을 살리는 귀한 부르심에 동참할 수 있어 가문의 영광이다"며 이번 성회에 대한 특별한 기대를 밝혔다.

첫 집회는 주선애 교수(장신대)가 말씀을 전했다. 93세의 주 교수는 우리나라 최초 여성 기독교 교육학 박사 여성 신학자이자 '탈북민들의 어머니'로 불리는 원로이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을 선포한 주 교수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하신 것은 '너희 자신의 죄와 자녀들의 죄를 회개하라'는 뜻이라고 말하고, 부모세대의 이기심과 개인주의의 죄악을 지적했다.

또 "가난하고 부족해도 주님 뜻대로 사는, 죽음의 골고다 언덕까지 주님을 바짝 따라가는 다음세대를 키워야 한다"고 말하고,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사는 의롭고 정직하며 진실한 다음세대를 길러낼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통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했다.

간경화를 앓고 있던 20대 탈북민 여성에게 자신의 간의 70%를 떼어준 탈북민 김태희 자유와인권위위 한탈북자연대 대표는 3번의 복송과 4번의 탈출 과정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증거했다.

인도네시아에서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는 조현호 선교사는 로마서 4장 18-25절을 통해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은 까닭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함이었다"며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역사하신다"고 했다.

한편 17일에는 "북한 리더십 연구"(최영재 아시아투데이 정치부장) "동성애와 보건"(김지연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 전문위원) "동성애와 에이즈"(염안섭 수동연세병원 원장) "거룩과 능력"(이윤희 에스터기도운동 대표) 등의 강연이 이어졌다. 이수민 기자

“신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졸업 후 진로문제”

기독교연합신문, 신대원생 300명 대상 설문조사 졸업 후 진로(57%)·결혼과 이성 문제(39%)·경제적 어려움(36%)

한국교회 차세대를 준비하는 신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졸업 후 진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 계획에 대해 '목회자'를 계획하고 있는 이들은 절반 정도였으며, 목회자의 꿈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 준비'를 하는 신학생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기독교연합신문(아이굿뉴스)이 창간 28주년을 맞아 개혁주의생명신학실천신학회와 공동으로 설문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 전국에 있는 신학대학원 11곳을 선정해 M.Div. 과정을 밟고 있는 재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대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확인된 것이다.

이들이 진행한 '신학대학원생의 의식과 사역에 대한 설문조사'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예비 목회자들의 생각 및 시각과 신학교육에 대한 만족도 전반을 알아보기 위해 기획됐다. 설문조사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11개 신학대학원을 대상으로 정원에 비례해 300명의 표본을 뽑아 일대일 면접 형식으로 진행했다고 이 신문은 밝혔다.

이 신문에 따르면, 신대원생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졸업 후 진로'라는 응답이 57.6%를 차지했다. 이어 결혼과 이성 문제가 39.0%, 경제적 어려움이 36.0%였다.

진로에 대한 계획에 대해 졸업 이후 '목회자'를 계획하고 있는 응답자는 53.3%, '선교사' 13.7%, '아직 방향을 정하지 못했다'가 13.3%, '특수 사역' 7.7%, '선교단체/NGO 등 기독교단체' 3.7%, '일반 교회사역' 2.7%, 기타 1% 순이었다. '목회자' 비전은 남학생이 57.4%로 여학생 29.5%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으며, 아직 방향을 정하지 못했다'는 여학생은 25%로 4명 중 1명꼴이었다.

목회 사례비에 대해서는 '전임전도사'는 월 158만 원, '부목사'는 월 225만 원, '담임목사'는 월 304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답했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가 지난 2012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담임목사 실제 사례비는 월 213만 원 수준이다.

신대원생들의 '본인에 대한 윤리의식'은 매우 엄격한 것으로,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한 인식은 비판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교회 신뢰도 회복을 위한 개선점으로 '교인과 교회 지도자들의 신행불일치'(64.3%)를 가장 많이 꼽았고, '목회자 세금 납부' 문제는 신학생 5명 중 4명(79.0%)이 찬성한다고 답했다. 김은애 기자

“眞보수 자처 총신대 동성애자 모임”

보수주의를 자처하는 예정합동지역 신학교인 총신대학교에서 동성애자들의 모임이 활동 중에 있어 교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총신대학교 성소수자 인권모임 캉총캉총'이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인 이 모임은 트위터 외에도 페이스북과 블로그 등으로 활동 중이며, 먼저 온라인 상의 연대를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듯 보인다.

이에 대해 반동성애기독교시민연대 대표 주요섭 목사는 "총신대학교를 비롯, 신학교는 입학할 때 추천서를 받고 신앙고백도 받는 걸로 알고 있다"고 지적하고, "캉총캉총

모임에 가입하여 적극 동성애지지 활동을 하는 이들 중에 총신대생들이 포함돼 있는 게 분명하지 않겠느냐"면서 "그 사실이 확실하다면, 왜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하는가"라고 물었다.

주 목사는 "지금처럼 방치할 경우 훗날 독버섯처럼 자라 총신대를 타락시키고, 한국교회를 타락시킬 게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고 말하고, "이번 기회에 신입생은 물론,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신앙고백서'를 다시 받아 동성애에 대한 견해를 분명하게 파악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이수민 기자

2016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p>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p> <p>L.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와 ATS 정회원)</p> <p>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S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p>	<p>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기독교대학(M.A)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지체 발행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입학상담: 김시은 목사 712131407-4699 <p>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류종길 박사, 이사장: 김광열 목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 ceumaster@gmail.com</p>	<p>미주대한신학대학</p> <p>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령에 대한 중증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중 앙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p> <p>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p>	<p>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p> <p>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p> <p>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p>
<p>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p> <p>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p> <p>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p>	<p>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p> <p>TRACS 정회원 인증 특전: Sevis I-20 발행/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p> <p>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p>	<p>솔로몬대학교</p> <p>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p> <p>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리아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p>	<p>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p> <p>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p> <p>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p>
<p>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p> <p>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업 김호 박사</p> <p>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p>	<p>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p> <p>With the world! To the world!</p> <p>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p>	<p>FULLER THEOLOGICAL SEMINARY</p> <p>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p> <p>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p>	<p>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p> <p>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p> <p>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p>



과거 열린 셰퍼드 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셰퍼드 컨퍼런스”

매개신교 최대 세미나... 9일~11일, 선벨리 소재 그레이스커뮤니티처치에서

영적 양떼들이 교인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의 역할을 맡고 있는 목회자 및 평신도 리더들이 한 자리에 모여 배우고 영성을 재충전하는 대형 행사가 다음달 남가주에서 열린다. 선벨리 소재 그레이스커뮤니티처치(13248 Roscoe Blvd.)는 오는 9일(수)~11일(금) 매개신교계 최대의 리더 세미나인 ‘셰퍼드 컨퍼런스’(Shepherds Conference)를 개최한다.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이 컨퍼런스에는 미 전국을 물론 한국을 비롯, 영국, 독일, 미얀마, 우크라이나 등 세계 나라에서 3000명이 넘는 목회자 및 평신도 리더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경의 절대무오성을 믿는 보수주의 신학의 바탕에서 진행되는 이 행사에서는 한국어 동시통역이 제공되며 한인 참석자들이 모여 함께 교제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교회 측은 “셰퍼드 컨퍼런스의 목적은 교회에서 리더의 자리에 있는 남성들에게 성경적 사역에 헌신하도록 도전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목자님인 예수 그리스도의 더욱 쓸모 있는 종이 되기 위해 애쓰는 과정에서 서로 격려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번 컨퍼런스의 강사는 이 교회 담임인 자 저술가, 강사, 매스터스대학·신학교 총장인 존 맥아더 목사 등 8명. 1969년 이 교회에 부임, 47년간 사역해 온 맥아더 목사는 ‘한 완전한 생애’ ‘이상한 불’ ‘예수 복음’ ‘맥아더의 신앙 주석 시리즈’ ‘맥아더 스테디 성경’ 등의 책을 출간하고 Grace to You 라는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청취자들을 만

나면서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밖에 남침례신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하며 살렘 라디오 네트워크를 진행하는 알버트 몰러 박사, 많은 책을 저술한 리포드신학교의 리곤 당컨 박사, 페루에서 10년간 선교사로 사역하고 워싱턴 선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하트크라이선교사협회를 창립한 폴 쉬서 목사, 원패션선교회 대표이자 매스터스신학교 교수로 20여권의 책을 낸 스티븐 로슨 박사, 필 존슨 목사, 이 교회 출신으로 현재는 말리시의 컨트리사이드성경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탐 페넌턴 박사, 이 교회 장모로 매스터스신학교에서 성경신학을 가르치는 네이든 뷔즈니츠 박사 등이 강의한다.

맥아더 목사는 “기독교가 시대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이번 행사는 인종과 문화를 넘어 지역교회와 세계교회 목회자들이 한곳에 모여 성경을 통한 진리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약 1,000명의 이 교회 교인들이 자원봉사자로 섬기는 이번 컨퍼런스의 참가비는 아침과 점심을 포함 375달러이다.

한편 맥아더 목사를 통해 많은 깨달음을 얻은 한인들이 GracetoKorea.org라는 한국어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한국어로 통역된 맥아더 목사의 설교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문의: 818-909-5500, www.shepherdsconference.org

김장섭 기자

“풀러신학교 ‘코리안센터’ 출범”

학교 측, 충분한 논의 후 결정 주장... 차별적 구조조정 의견 대두

풀러신학교(총장 마크 래버튼)가 지난 4일 오는 3월 25일부터 새롭게 ‘코리안센터’(Korean Center)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한국인 프로그램에 대한 구조조정 단행 가능성으로 충격을 주고 있다.

풀러신학교 측은 코리안센터 출범과 관련 “코리안센터의 출범은 풀러의 헌신과 더 나은 섬김을 하려고 하는 풀러의 깊은 결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학교 측의 발표 직전, 한국인 프로그램에 대해 갑작스런 구조조정이 있었다. 한국어 프로그램 교수 및 직원 등 한국어 과정 스태프 중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6명이 해고 통보를 받았다.

또한 이번 구조조정은 한인 교수진과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돼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아울러 “한인 교계 일각에서는 인종차별적 결정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풀러신학교는 코리안센터 출범 소식을 전하며, 초대원장으로 동부 아프리카의 에리트레아의 칼리외오 성경학교와 에티오피아의 복음주의신학교에서 교수로 섬긴 안전상 박사를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그러

면서 “코리안센터는 풀러신학교와 각 학위 프로그램들이 동일하게 유지될 예정이며, 현재의 과정에서 공부를 지속해 나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 측은 “코리안센터의 설립은 여러 해에 걸친 심도 있는 검토와 계획을 거쳐 추진됐다. 한국 교수진들과 교회 지도자들, 졸업생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나눴고 작년 8월에 이행을 구성하고 구조 변화 과정을 시작했다”며 일방적 구조조정을 부인했다.

풀러신학교는 코리안센터의 출범과 관련, 코리안센터의 비전과 계획을 소개하기 위해 풀러의 총장인 마크 래버튼(Mark Labberton) 박사가 올 가을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풀러신학교는 신학, 선교학, 심리학 세 학부로 구성된 대학원대학교로서 영어, 한국어, 스페인어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90여 개 나라 110개 교단에서 온 4,000여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또한 4만1,000여 명의 동문이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사역자, 상담가, 교수, 예술가, 비영리단체 지도자, 사업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섬기고 있다.

“청교도목회연구원, 뉴욕서 첫 모임”

칼빈주의 신학과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청교도 사상과 목회적 실천을 연구하기 위한 모인인 ‘청교도목회연구원’이 뉴욕에 시작돼 최근 뉴욕 근교에서 첫 모임을 가졌다.

뉴욕지역 목회자 14명이 모인 가운데 시작한 첫 모임은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1박2일간 뉴욕 킹스턴 근교의 은혜도원에서 이뤄졌다.

‘청교도목회연구원’은 문석호 목사(호신장로교회)가 한국 총신대 교수로 지내면서 한국의 다양한 교단의 목회자와 함께 목회 발전과 교류를 위해 만든 모임으로, 올해부터 뉴욕에서도 시작하게 됐다. 첫 모임에서는 문석호 목사가 강사로

나서 청교도 목회자들에게 대한 기본이해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문석호 목사는 “청교도 사상과 목회적 실천을 배우는 것은 단순히 지나간 시대의 흔적들을 뒤돌아보는 것만 아니다”라면서 “절저한 신학적 사고와 성경 중심의 설교를 중심으로 하는 영적 지도력을 배우고 사명을 통해 당시의 시대를 개혁하고자 했던 위대한 꿈을 배우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석호 목사는 “신앙의 거목들이 남긴 글들을 통해 오늘날의 목회를 바르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 모임은 4월 24일에서 26일까지 진행된다.

▲문의: 이준성 목사(718-440-2289)



LA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점심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 - 비침중학교 / 토요새벽 - 17와버몬트코너 주중새벽 -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들에게 구원과 진리를 전하며, 이 땅에 온 세상을 치료하며, 선교영광을 승화하는 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 386-2233
주일예배 오전 11:20 주일학교 오전 11:20 학생 청년부 예배 오전 11:20	연제선 담임목사 LA 온하늘교회 1540 S. St Andrews Pl, Los Angeles, CA90019 T.(818)983-9024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 - 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102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90006 T.(213) 909-6473 / www.missionla.org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연애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회 함께웃고 함께주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주일 오후 4시 새벽 오전 5:30 (월-토) 저녁 오후 7:30 (화, 목, 금)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978 S. Hoover St. #203, LA, CA 90006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4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나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한기형 담임목사 나성동산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213) 487-3920
1부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유초등부 오후 11:00 토 오전 6:30 EM 예배 오후 1:00 토요공부방 토 오전 9:30-12:30 한어청년부 오후 1:30 아이-나기도방 수요일 10:30	서건오 담임목사 나성서부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사가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 939-7323 / www.kwpcla.org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박헌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3251 W. 6th St., LA, CA 90020 T.(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대학부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유초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0:45 6:00(토)	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9:00 유초등부 · 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정오 11:00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주일 오후 1:30 수요집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정우성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213)598-0191
영어예배: 주일 오전 10: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성경공부: 주일 오전 10:30 토 오전 6:30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신현호 담임목사 새하늘 교회 2909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Tel. (213) 500-3721 / www.Newheavenchurch.com
1부예배 오전 9:00 유초등부 · 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정오 11:00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주일 오후 1:30 수요집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김영구 담임목사 나눔장로교회 엔키아 선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407 W. 6th St. #804, Los Angeles, CA 90020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8: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30	정정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겸은 밑, 마음, 꿈, 열매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류종길 담임목사 임마누엘선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효험, 소신 초 정신의 효험, 비론교회관의 효험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종기 담임목사 충현선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 549-9199 / choonghyun.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 오후 7:30	강지연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점심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 - 비침중학교 / 토요새벽 - 17와버몬트코너 주중새벽 -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김범수 치과 Bryan Kim D.M.D. General & Cosmetic Dentistry 1011 S. A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19 T.(213)389-0937, (213)389-0938 F.(323)735-1937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 오후 7:30	대표 주해운 목사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Ezra Bible Reading Ministry 1661 Raymond Ave. #265, Anaheim, CA 92801 www.ezrabible.com

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p>고태형 담임목사</p> <p>1부예 오전 8:00 2부예 오전 9:30 3부예 오전 11:00 4부예 오후 1:00, 금요일 오후 8:00 새벽예(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p> <p>ECO 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 교회</p> <p>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church.org</p>	<p>이희철 담임목사</p> <p>1부예 오전 8:00, 종교동부예 오전 11:00 2부예 오전 11:00, 수요일양성림교회 오후 8:00 3부예 오후 1:00, 금요일양성림교회 오후 8:00 어린이예 오전 11:00</p> <p>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p> <p>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p>
<p>김성민 담임목사</p> <p>주일예 오전 10: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일양성림교회 오후 8:00 주일성경공부 오전 9:30, 주일학교 주일오전 10:30 영어회중예배-주일 오후 1:00</p> <p>남가주새소망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p> <p>500 Montebello Blvd., Rosemead, CA 91770 T. (626) 872-2405, F. (503) 332-1941 www.newhopechurchla.com</p>	<p>고송희 담임목사</p> <p>1부예 오전 7:45, 종교동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3부예 오전 11:45</p> <p>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p> <p>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p>
<p>박신철 담임목사</p> <p>1부예 오전 7:30, EM 1부예 오전 9:30 2부예 오전 9:15, EM 2부예 오전 11:45 3부예 오전 11:45, 수요일양성림교회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오전 6:00</p> <p>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랑을 위하여 사는 교회</p> <p>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p>	<p>이훈준 담임목사</p> <p>1부예 오전 8:00, 수요일예 오전 7:30 2부예 오전 11:00, 금요일예 오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매주 수) 오전 10:00-11:00</p> <p>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p> <p>173 E. 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 (909) 388-2940</p>
<p>최승묵 담임목사</p> <p>주일예 오전 9시 (지성전), 금요일예 오후 7:30 오전 11시 (본성전), 매일 OT 월-금 오전 6:00 토요일새벽예 오전 6:00 본성전: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p> <p>팜스프링스 한인감리교회</p> <p>T. (760) 636-2675 / pspkmccom</p>	<p>이승준 담임목사</p> <p>1부예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2부예 오전 10:00, 오전 6:00 (토) 3부예 오전 11:45,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p> <p>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p> <p>18616 E. Romir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p>
<p>송재호 담임목사</p> <p>1부예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 오전 11:00, 수요일예 오후 7:30 종교개혁 오전 10:3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금요일성경공부 오후 7:00</p> <p>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p> <p>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p>	<p>문/사/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p> <p>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p>

사우스 베이 지역

<p>이호민 담임목사</p> <p>1부예 오전 8:00, 수요일예 오후 7:30 2부예 오전 11:30, 금요일예 오후 11:00 다민족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p> <p>가디나선교회</p> <p>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213) 365-9188</p>	<p>이창민 담임목사</p> <p>1부예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0:00 2부예 오전 11:00, 수요일예 오후 7:30 3부예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p> <p>L.A. 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p> <p>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p>
<p>정상용 담임목사</p> <p>1부예 오전 8:00, 1부예(EM) 오전 11:00 2부예 오전 11:00, 2부예(EM) 오후 1:15 3부예(인) 오후 2:00, 종교동부예(EM) 오전 11:00 수요일예 오후 7:30, 금요일예 오후 9:30</p> <p>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p> <p>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p>	<p>김준식 담임목사</p> <p>1부예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2부예 오전 9:30, 한어청년부 오후 2:15 3부예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p> <p>남가주 샬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p> <p>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 787-1004 shalomch.org</p>
<p>권영국 담임목사</p> <p>1부예 오전 8:00, EM 1부 9:30 / 2부 11:00 2부예 오전 9:30,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 오전 11:00, 유아/유저부예배 오전 11:00</p> <p>대흥장로교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p> <p>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p>	<p>서보천 담임목사</p> <p>1부예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수요일예 오후 8: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p> <p>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p> <p>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douloschurch.com</p>
<p>강신권 담임목사</p> <p>1부예 오전 8:00, 청년부예배 EM 오후 1:30 2부예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p> <p>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p> <p>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 257-8170</p>	<p>박성규 담임목사</p> <p>1부예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50 3부예(청년부) 오후 1:30, 금요일성경대학 금요일 오후 7:20 EM예배 오전 11:00</p> <p>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p> <p>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p>
<p>이종용 담임목사</p> <p>1부예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3부예 오후 2:00</p> <p>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p> <p>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n.com</p>	<p>김바울 담임목사</p> <p>1부예 오전 8:00, 장애우예배 오전 10:00 2부예 오전 10:00, Toddler - Youth 오전 10:00 3부예 오전 11:3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0:00(장년), 수요일예 오후 8:00 KJM예배 오후 3:00(장년), 금요일예 오후 8:00</p> <p>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p> <p>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p>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나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버뱅크 지역

<p>류준영 담임목사</p> <p>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20 주일 성경공부(사교부반) 새벽예배 오전 7:00 (토) 오후 1:00</p> <p>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지라는, 건강한 교회!</p> <p>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p>	<p>이정현 담임목사</p> <p>주일 1부 오전 8:00, 종교동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부 오전 12:30 EM예배 오전 12:30, 수요일예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p> <p>만남의교회 여호와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p> <p>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 882-9191 / F. (818) 882-9777 www.churchmanam.com</p>
<p>방수민 담임목사</p> <p>1부예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예 오전 11:00, 김요전양예배 오후 8:00 (금) 종교동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 (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 (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p> <p>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받는 교회 친미하는 교회</p> <p>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 (818) 845-5431 / F. (818) 845-1683 / bkchurch.org</p>	<p>락덕근 담임목사</p> <p>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6:00 (토)</p> <p>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p> <p>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p>
<p>김민식 담임목사</p> <p>1부예 오전 8:30, 2부예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p> <p>웨스트힐장로교회 West Hills Presbyterian Church</p> <p>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p>	<p>최혁 담임목사</p> <p>밸리채플 Valley Chapel 주일예배 - 오전 8:00 / 9:45 금요일성경집회 - 저녁 7:45 수요일예배 - 월-금 5:30, 토 6:00 1814 316th St., Northridge, CA 91328 1515 S. Santa Fe Ave., LA, CA 90021 T. (818) 863-5887</p> <p>LA예배소 주일(영성예배) 9:30am, 11:30am 금요일성경집회 - 저녁 7:15pm 수요일예배 - 월-금 5:30am, 토 6:00am 새벽예배 - 월-금 5:30am, 토 6:00am 1814 316th St., Northridge, CA 91328 1515 S. Santa Fe Ave., LA, CA 90021 T. (818) 863-5887</p> <p>주간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p>



PCUSA 본부 전경. ©미국 크리스천포스트

“친동성애 PCUSA, 교세 급락”

2020년까지 40만 명 더 떠나...매년 약 1천 교회 사라져

미국장로교(PCUSA)의 성도 수가 2015년부터 2020년 사이에 약 40만 명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PCUSA의 내부 문서를 인용해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이 같은 수치는 보수적인 장로교 출판사인 '더 레이맨(The Layman)'이 집계했다.

더 레이맨은 "성도 수가 2015년부터 2016년 사이에만 10만 명 이상,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7만 5천 명 이상 줄어든 것"이라면서 2013년에는 89,296명, 2014년에는 92,433명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통계 예상치는 그동안의 성도 수 감소세를 반영한 것이다. 이 같은 추세는 매년 교회가 1천 개 이상 감소하는 것과 같으며, 반전의 계기가 없을 경우 머지않아 교세가 현재의 절반 수준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PCUSA는 최근 수년간 교세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0년에는 성도 수가 250만 명 이상이었던 반면, 2014년에는 절반 이상 줄어들어 100만 명을 넘는 수준이 됐다. 2014년에는 산하 교회 수도 1만 개 이하로 떨어진 상태다.

PCUSA의 교세 추락은 동성애에 수용적인 입장을 보인 이후 더 빨라지고 있다. 특히 ECC(Evangelical Covenant Order of Presbyterians, 복음주의언약장로회)가 떨어져 나가면서 큰 타격을 입었지만, PCUSA는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현재 PCUSA의 친동성애-친동성결혼 정책으로 인해 탈퇴를 추진하는 교회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美 가장 큰 실수는 동성결혼 합법화”

대선투표 독려 캠페인 프랭클린 목사...연일 심판 경고하며 회개 촉구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

美 전역을 돌면서 '디시전 아메리카'(Decision America) 캠페인을 벌이며 복음주의자들에게 대선 투표를 독려 중인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가, 연일 회개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주 애틀랜타에서 기도회를 열었던 프랭클린 목사는 지역 방송국에 출연해 "미국이 하나님의 법과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성경은 인종과 성별에 따른 분리를 가르치지 않는다. 하지만 동성애에 대해서는 매우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의문의 여지가 없다. 매우 분명하다. 그

렇기 때문에 논쟁할 수가 없다"고 했다. 과거에 자신들의 관점을 정당화하기 위해 성경을 이용했던 인종차별주의자들에게 "자, 성경 어디에 '분리하라'는 말씀이 있었는가? 여러 분이 내게 보여 달라"며 "그런 내용은 없다. 인간이 분리를 한 것이지 하나님께서하신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레함 목사는 현재 자신이 목도하고 있는 현상들을 '도덕적 기습'이라고 표현하면서, 동성결혼 합법화가 미국의 가장 큰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동성결혼이 사회에 위협적이라는 질문에 대해 그는 "이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적대적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항한다면 이는 사회에 위협적이다. 난 이를 장담할 수 있다"고 했다.

그레함 목사는 동성애자들이 끊임없이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지적해 왔다.

“RFA, 北서 '생계형 자살' 잇따라”

자본주의에서나 볼 수 있는 사채업까지 등장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낮다는 북한에서 최근 생활고 이유로 자살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자유아시아방송(RFA)이 북한의 내부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에서 자살은 곧 당과 수령에 대한 엄중한 배신행위로 처리된다. 이로 인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자살한 사람은 무조건 적대계층으로 분류되며 남겨진 부모 형제, 가족들에게 '연좌죄(연좌제)'가 적용되고 있다.

8일 평양시의 한 소식통은 "평양에는 최근 신흥부자들이 늘어나면서 주민들간의 빈부격차도 더욱 커지는 추세"라며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밀려났거나 끝내 희생할 길이 막막한 사람들은 자살을 택해 주변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고 RFA에게 전했다.

소식통은 또 "지난 5일 평양시 통일거리의 수중다리 주변 30층 아파트에서 두 자녀를 둔 한 여성이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자살의 원인이 돈 1천 달러 때문인 것으로 밝혀져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고 밝혔다. 또 "이 아파트에서는 자살 사건이 여러 번 발생한 탓에 몇 년 전부터 평양 시민들 속에서 이 아파트가 '자살아파트'로 불렸다"며 "자본주의에서나 볼 수 있는 고리대(사채)업이 늘면서 평양에서 자살사건이 급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다.

북한 소식통들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뒷배급 없이는 살 수 없는 사회구조가 주민들의 극단적인 결정을 부추기고 있다고 RFA는 보도했다.

“동성혼 반대했던 보수 성향 美대법관 사망”

美 연방대법원의 안토니 스키타리아(79) 대법관이 사망했다. 스키타리아 대법관은 텍사스 서부에 소재한 한 리조트에서 12일 저녁 사망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성명을 통해 "스키타리아는 뛰어난 개인이자 법관이였다"면서 "그의 죽음은 대법원과 나라에 큰 손실"이라고 했다.

스키타리아 대법관의 사망으로 연방대법원의 성향이 달라질 우려도 제기된다. 미대선이 있는 해에 오바마 대통령이 잔여 임기 중 대법관 후임을 지명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9명으로 구성된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금까지 강경 보수파 스키타리아 대법관을 비롯한 보수파 5명과 진보파 4명으로 구성돼 있었다.

“美 유학 중 예수 영접하는 中國 청년들”

美 선교회에서 양육받는 유학생 중 다수가 중국인

수많은 중국 청년들이 미국 유학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기독교인이 되고 있다고 포린폴리시가 최근 기사를 통해 보도했다. 포린폴리시는 인터바시티(InterVarsity) 선교회와 뉴욕대학교 내 학생 교회 등의 여러 지도자들과의 인터뷰를 인용해 이와 같은 내용을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수십만 명의 중국인 유학생들이 무신론자인 상태로 미국에 들어오지만, 그 중 수천 명이 기독교 문화의 영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있다.

국제교육연구소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한 해에만 30만 4천여 명 이상의 중국 청년들이 미국 내 대학교와 대학에서 공부했다.

인터바시티 선교회 캠퍼스 선교 대표 디렉터인 그레고리 자오는 현재 이 선교회에서 신앙을 양육받고 있는 외국인 학생 수가 5천여 명이며 그 중 1,600명에서 1,800명 정도가 중국인이라고 밝혔다. 또 뉴욕대학교 교목인 발레리 알트하우스 목사 역시 교내 영성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들의 대부분이 중국 국적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많은 중국인 청년들이 미국에

서 기독교 신앙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이유 중 하나로 알트하우스 목사는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중국인 학생들의 강한 열망”을 꼽았다. 또한 “미국과 미국인의 삶에 대한 호기심”, “미국의 종교와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관심”도 중국인 청년들이 처음 기독교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동기라고 알트하우스 목사는 설명했다.

중국에서는 1949년 공산당 집권 이래로 종교를 갖거나 종교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왔으며 기독교인들은 정부의 박해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종교를 국가적 '독'으로 간주하는 반종교 정책 아래서 기독교인들은 심각한 탄압을 받았다.

한편, 중국인 청년들은 1989년 천안문 시위 이래로 점점 더 복음에 개방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양 펑강 박사는 말했다. 그는 2014년에 중국 내 개신교 인구가 2025년까지 1억 6천만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이 숫자는 미 개신교인 1억 5천9백만 명보다도 큰 숫자로, 중국은 2030년에는 가톨릭 인구까지 포함해 전체 기독교 인구가 2억 4천 7백만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이슬람으로 개종한 넬슨 만델라 장손”



만델라 만델라만델라 전 대통령 장손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공화국 전 대통령의 장손이 이슬람으로 개종, 남아공 전통 지도자회의가 당황하고 남아공이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주인공은 만델라 만델라(42)로, 그는 무슬림인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 지난해 말 이슬람으로 개종했다. 지난주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결혼식은 그의 4번째 결혼식이다.

만델라는 결혼식 후 성명을 통해 “아내의 부모와 가족들, 무슬림 사회가 본인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만델라는 이스테케이프 주 음베조의 추장이기도 하다. 그는 2013년 만델라 전 대통령이 별세한 후 텀부족 왕가의 장손으로 집안 수장이 됐고, 만델라의 고향에서 추장이 됐다.

한편 전통지도자회의의 대변인은 “(그가) 어떤 신념을 따르는 것은 관중이지만, 추장의 책임을 다할 수 있을지는 우려스럽다”고 했다. 더불어 만델라가 부족에 대한 충성심이 분명한지도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슬람권...세계 최연소 여성 장관 탄생”

여성 인권이 열악한 이슬람권에서 세계 최연소 여성 장관이 탄생해 화제다. 그 주인공은 바로 아랍에미리트(UAE) 청년 담당 장관인 샴마 마즈루이(22)이다.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 막툼 총리 겸 부통령은 10일(현지시간) 그를 청년 담당 장관으로 임명하고, 그녀에게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달라고 당부했다.

무함마드 부통령은 청년 담당 장관을 임명하기 위해 UAE 전역에서 '25살 이하, 지난 2년 내 대학을 졸업했거나 올해 졸업할 예정인 자'를 찾았다. 이후 후보자 남녀 각각 3인이 찾아졌고, 최종적으로 마즈루이 장관이 임명됐다.

임명 직후 무함마드 부통령은 “청년들이 아랍 사회의 절반을 차지하는 만큼, 그들의 열망이 제대로 인정받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마즈루이 장관은 장관직과 함께 국가 청년위원회의 의장직도 겸임한다. 그녀는 앞으로 UAE의 청년 정책을 이끌 예정이다. 그녀는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뉴욕대 아부다비분교에서 각각 예술과 경



샴마 마즈루이 장관 @NYU

제학을 전공했으며, UAE에서 처음 로즈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유학도 다녀왔다. UN에 파견되어 공공정책을 연구하고, UAE 총리실에서 정책 분석가로 활동하는 등 실무 경험을 쌓기도 했다.

UAE는 이번 개각을 통해 8명의 장관을 새로 임명했는데, 이 가운데 5명이 여성 장관이다. 장관은 모두 29명으로, 여성은 이 가운데 9명이다. 그러나 UAE의 여성 장관 임명은 파격적인 일이지만, 여전히 여성 인권은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나라에서 여성 참정권은 2006년에서야 인정 받았다.

한편 세계에서 마즈루이 장관 이전 지금까지 최연소 장관은 지난해 11월 임명된 캐나다 마리암 몬세프(31) 민주제도 부 장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獨 췌린 집단성폭력 사건”

사건 용의자들은 대부분 난민 출신으로 밝혀져

올해 초 집단성폭력 사건으로 전 세계 인물에게 충격을 줬던 ‘獨 췌린 사태’가 난민들의 소행인 것으로 밝혀졌다.

15일(현지시간) ‘獨 췌린’은 이번 췌린 집단성폭력 사건 용의자 대부분이 난민이라고 전했다. 율리히 브레머 검찰 대변인은 “현재 용의자 73명의 신원을 특정했다”고 밝히고, “이들 대다수가 북아프리카 출신”이라 전했다.

용의자들 가운데 모로코 출신은 30명, 알제리 출신은 27명, 이라크 출신은 4명, 시리아와 튀니지, 독일 등은 각각 3명, 이란, 몬테네그로, 리비아 등은 각각 1명이다. 이 가운데 12명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지난해 11월 독일에 난민 신청을 한 모로코 출신 1명은 구금된 상태다. 브레머 대변인은 “압도적 다수가 일반 분류를 해서도 ‘난민’이라 말할 수 있다”면서 지위는 불법체류자, 난민, 난민신청자 등 다양하다고 했다.

한편 ‘獨 췌린 집단성폭력 사건’ 당시 1,075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467건이 성폭행 및 성희롱 등 성범죄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난민 우호 정책이 역풍을 맞게 됐고, 총리 지지율은 떨어졌다.

O.C./앨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주일예배 1부 주일 9:00AM 새벽예배 월-금 5:30AM 주일예배 2부 주일 11:00AM 토 6:30PM 주말학교 주일 11:00AM NEX(한국말) 토 9:30AM-10PM 대학원(E-college) 주일 2:00PM NEX Kids club 주일 12:40AM-1:40PM 제자훈련(사역훈련) 화-목 7:30PM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김일영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NEXT Sa-Rang Church 11 Musick Irvine, CA 92618 Tel (949)829-0010(office) www.nextsarang.com
주일예배 (1부) 10:00am 수요일기도회 9:00pm (2부) 1:30pm 금요일전날야예배 8:00pm 새벽예배 (월-토) 5:00am - (다들날) 7:00am 화요일모교기도회 7:00pm 토요일청년예배 7: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청년부 오전 9:30, 11:30 한아대학원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714-600-7700 www.ubmchurch.com	김영길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선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후 2:30 2부예배 오후 12:30 유초등부 예배 오후 12:3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생가족 예배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원예배 오후 2:30 오병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나침반 한국교회 주일 오전 9:15 영 유아부 오전 11:00 EM,대학부 오후 1:30 유초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5600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T.(714) 801-1625 kpcadavid@yahoo.com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흠뻑하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T.(562)691-0691 F.(562)691-0698 / nachimban.org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2부예배 오후 11: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화-금 5:30 (월-금) 박재만 담임목사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분당 2부 주일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공부 저녁 8:00 분당 3부 주일예배 오후 1:30 허규암 담임목사
4552 Lincoln Ave.#207, Cypress, CA 90630 T. (714) 952-0191 / www.socalcfc.com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분당 2부 주일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공부 저녁 8:00 분당 3부 주일예배 오후 1:30 하규암 담임목사 놀워한인교회 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Ministry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562)802-4959 C.(714)308-7038 / usa8291@gma.com
주일예배(KM) 주일 11:00am 금요일영예배 7:30pm 영아예배(EM) 주일 9: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저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EM주일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8시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908-9191 / www.missionway.org mcc.office.email@gmail.com	김일권 담임목사 다감사교회 The Gamsa Community Church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714)988-3321, www.dagamsachurch.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2:20 유초등부 예배 토 새벽 6: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토 6:00am 고현종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45 금요사바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9:30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949)502-4923 / www.disciplecc.org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4부 청년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00 토요일예배 화-금 5:30am 토요일예배 화-금 5:30am 김한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P-lander(Korean)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Children(아) 오전 11:00 금요일 기도모임 오후 8:00 Youth(7-12) 오전 11:00 토요일학교, 예배터스쿨 College 오후 1:00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7702 Cowan, Irvine, CA 92614 T. (949)250-1111 / www.beautiful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 오전 9:15 중등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한아대학원부 오후 2:00 권혁민 담임목사	주일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영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원부 오후 1:30 홍성준 담임목사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769-9628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아)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아) 청년부 수요일영기도회 오후 7:00 FAME예배 오전 11:30(청년 영아)	주일 인터넷 생방송기 오전 6:30 주일 예배:오전 11:30 주일 목요예배:오후 7:30 토요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291-5900 / (714)833-2568 daekwon.org
주일예배 오전 9:00 & 11:50 새벽예배 화-토 5:30, 토 6: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김민재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15 유년부 초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영아중고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한아중고등부예배 오전 10:30 영아주일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주일 오전 6:00
4221 Rose Dr., Yorba Linda, CA 92886 (Worship Center) T.(714)788-3677 / www.wyechurch.com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 (교회 사무실)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 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일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rcoc.com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일기도회 오후 8:00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히스패닉 예배 오후 6:00 주혁목 담임목사	풀러튼 채플 Fullerton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목요일성령집회: 7:45pm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117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2 T. (657)217-5558
주일 성령기 예배: 오전 9:00am 금요일기도회: 금요일 오후 8:00pm 주일 한국어 예배: 오전 11:00am 새벽기도회 월-금요일 오전 5:30am 주일 영어 예배: 오전 11:00am 토요일 오전 6:00am 주일 유초등 예배: 오전 11:00am	14706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213) 247-7440 / godsggracechurch.org
1808 W.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714)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 info@Pottersccc.com	14706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213) 247-7440 / godsggracechurch.org

제8차 한인세계선교대회

격동하는 지구촌의 종말론적 시대상황에 대한 선교전략의 재정립을 위해!
 세계복음화의 미완성과업을 위한 위대한 선교비전과 긴박성의 재확인을 위해!
 700만 한인디아스포라와 7000여 한인디아스포라교회의 선교적 대각성을 위해!
 국내외 최고 강사진 200여명과 세계한인선교사 1200여명을 비롯한
 목회자, 평신도, 청년, 대학생, 청소년, 어린이 및 선교사자녀(MK) 등
 도합 5000여명의 집결을 예상하는 이 시대 최대규모의 동반자 협력선교의 대광장!
제8차 한인세계선교대회에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2016년 6월 6일(월)-10일(금)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 캘리포니아



제15차 한인세계선교사대회

2016년 6월 3일(금)-6일(월) /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
전세계 한인선교사 1,200명



등록문의 www.kwmf.info / kwmf2016@gmail.com
KWMMF • 인도네시아 62-813-8100-9905, 070-8221-1361 • 미국 1-213-507-3875

KWMC2016 6월 6-10일	일반 (만26세 이상)	대학생/청년 한어권/영어권 (만18~25세)	청소년 (만13~17세)	초등학생 (만7~12세)	아동 (만3~6세)
1차 3/31 마감	□ \$300	□ \$200	□ \$150	□ \$100	□ \$50
2차 5/15 마감	□ \$325	□ \$225	□ \$175	□ \$125	□ \$75
3차 6/5 마감	□ \$350	□ \$250	□ \$200	□ \$150	□ \$100
KWMC 대회숙박	□ 기숙사 2인1실 \$150 /1인당 (4박5일) □ 아파트 2인1실 (2 베드룸) \$200 /1인당 (4박5일) □ 아파트 2인1실 (1 베드룸) \$215 /1인당 (4박5일)				동숙 무료 별도침대 □ \$50

*숙박을 안하실 경우 등록금만 내시면 됩니다. * 하루만 참가하실 경우(DAY-PASS) \$100 입니다.
 *한 교회에서 단체등록시 10명 이상은 등록금 10%를 할인해 드립니다. (숙박비 예외)

제3차 선교사자녀대회

2016년 6월 3일(금)-6일(월) 17세 이상 선교사 자녀 400명

모든 세대가 함께 가는 KWMC2016!
 KWMC2016은 모든 세대가 함께 가는 선교대회입니다.
 아래 대회들은 모두 제8차 한인세계선교대회와 동일한 일시인 2016년 6월 6일(월)-10일(금) 동 일한 장소인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개최됩니다.

영어권대회 English Conference

18세 이상 영어권 대학생/청년

GKYM FEST | 아동열 선교사 GKYM 사무총장

어린이선교대회

3-12세 | 여병현 목사 어린이전도협회

청소년선교대회

13-17세 | 고현진 전도사 고유진 전도사

일시	대회	대상
6/3(금)-6/6(월)	한인세계선교사대회	전세계 한인선교사
	MK(선교사자녀)대회	17세 이상 선교사자녀
	MK청소년선교대회	13-16세 선교사자녀
	MK어린이선교대회	3-12세 선교사자녀
6/6(월)-6/10(금)	제8차 한인세계선교대회	18세 이상 한어권
	차세대영어권선교대회	18세 이상 영어권
	청소년선교대회	13-17세 청소년
	어린이선교대회	3-12세 어린이

등록문의 **KWMC**
 온라인등록 ▶ www.kwmc.com
 이메일등록 ▶ kwmc@kwmc.com
 전화 ▶ 516-277-2081, 2082
 팩스 ▶ 516-686-6128
 ▶ 등록비가 인상되기 전에 속히 등록하시고 항공편도 속히 예약하실수록 저렴할 것입니다.

KWMC2016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
 Korean World Mission Council for Christ
 1330 Wolver Hollow Rd, Oyster Bay, NY 11771

2016년 6월 6일(월)-10일(금)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 캘리포니아
 901 E Alostia Ave, Azusa, CA 91702



●중보기도

하나님의 오른팔이 함께 하셨습니다

감옥 안에서 들려오는 ... 에리트레아 목사들의 감사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빌립보서 4장 14절)

오픈도어는 에리트레아(Eritrea)의 핍박받는 교회들을 향한 관심을 일으키고, 기도·격려하며 제자 훈련과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최근 한 에리트레아 목사에게서 이러한 후원에 대한 감사를 표현한 편지 한 통을 받았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핍박과 환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몇 명의 기독교인들이 나오면, 다른 몇 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그의 뜻을 행하십니다. 그분은 보좌에 앉아 하늘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산만하게 섬겨 왔으나, 이제 우리는 바울처럼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와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음식과 재정 후원에 있어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지금의 상황들이 변화되고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고향 땅에서 자유롭게 모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곳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가운데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시편 46편 1~3, 10~11절)

아래의 간증은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이야기입니다. 감옥 안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갇혀 있고, 몇 명은 최근에 풀려났는데 그 중 한 사람은 12년 동안 있었던 사람입니다.

합툼(Habtom)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진정한 간증은 한 지체인 다른 사람들이 강한 신자가 되는 것에 도



예배 금지 딱지가 붙은 교회당 입구.



오픈도어에게서 오토바이를 기부받은 한 에리트레아 목사.

움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에리트레아 군부대 감옥에서 9년이라는 극도로 어려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행하신 일들을 나눕니다.

제가 감옥에 갇히기 전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이 쓰여 있는 큰 판을 보았습니다. 그 구절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입니다. 저는 또한 예레미야에게 있는 말씀도 봤고, 그 후 하나님께서 제 삶에 핍박에 대해서 준비하게 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옥 안에서의 상황은 거듭난 신자들에게 극한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른팔이 우리와 함께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느끼며 격려를 받고, 우리의 마음은 소

망과 용기로 차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할 때,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믿음 때문에, 감옥에서 치료도 거부당했습니다. 저는 제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저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감옥은 제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이기적이고 자만하고 계속 작은 일들에 대해 불평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저는 제 삶을 다시 평가하였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제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로 저를 채워 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기도 후에 제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를 고문하고 감옥에 있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였습니다. 핍박

자를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하시고, 주님을 따라 복음을 전할 때에 핍박이 닥쳐 올 것을 알려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크신 일의 진짜 증인입니다. 저는 우리의 형제들과 자매들을 격려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삶에서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분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보호하고 계신지를 보여 주시는 시간으로 사용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종종 여러분의 삶에서 귀한 것을 하기 전에 어렵고, 그래서 견디기 힘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을 통과시키심을 기억하십시오.

[자료출처: 오픈도어 선교회]

●선교칼럼

‘일사각오 주기철’과 ‘내부자들: 디 오리지널’



한철호 선교사
미션파트너스 상임대표

기독교에 대해 너무 다른 이미지를 세상에 전달한 두 영상이 있다. 하나는 지난해 성탄절 즈음에 KBS가 방영한 주기철 목사 관련 다큐였고, 다른 하나는 '내부자들: 디 오리지널'이라는 영화였다. 하나는 기독교 목사를, 다른 하나는 사회의 부패상을 다뤘다. 전자는 목사가 주인공이지만, 시청자들은 그 영화에서 교회보다는 한 인간

과 국가를 보게 된다. 후자는 기독교인과 관련된 대사가 5초 정도만 등장하지만, 오늘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의 현실을 극적으로 드러낸다. KBS 다큐 '일사각오 주기철'에서 주기철 목사는 한 교회의 목사보다는 독립운동가로, 혹은 일제에 억압받는 민중의 정신적 지주로 비친다.

반면 '내부자들'에 등장한 기독교인(부패한 언론인 이강희)은 자신의 비리가 탄로나고 절박해지자 기도로 하나님의 해안을 간절히 구하는 신앙인으로 등장한다. 5초 정도밖에 안 되는 기도에서 기독교인의 이미지가 강력하게 전달된다.

'밀양' 이후 영화에서 기독교인은

자기 세계에 빠져 있는, 뻔뻔스러운 비양심과 이중적인 인격을 지닌 희화적 이미지로 등장한다.

영화 '밀양'에서 하나님께 대한(사실은 교회에 대한) 주인공의 절망은, 자신의 아들을 죽인 범인이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세상과 죄를 지은 당사자에게는 떳떳한 존재라고 말한 것 때문이었다.

영화 '내부자들'에서도 기독교인은 사회의 기독교 계층 이미지를 갖는다. 동시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복의 도구로 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복에 대해서 간절해 지는, 자기 중심적이며 이웃 즉 공적

양심과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그려진다. 신앙의 과도한 개인주의화는 한 그리스도인의 개인적 신앙과 공적 정체성을 별개로 취급하고 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오늘날 사회 안의 기독교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기독교인들 스스로에게 있는 것 같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복이 되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복을 받으라고 말한다. 출발이 잘못된 것 같다.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는 단지 목사가 아니라 독립운동가로 그려졌다. 물론 주기철 목사가 신사참배를 거부한 것은

그의 신앙적 결단이었다. 그런데 그의 신앙적 결단과 이웃(민족)의 과제(독립)가 대척점이 아니라 동일선상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는 신앙적 결단과 이웃의 공익이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 문제다.

선교도 마찬가지다. 때론 우리의 선교적 행위가 이웃의 유익과 대척점에 있게 되는 것은, 우리가 선교적 존재가 아니면서 선교적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선교적 존재가 된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다.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겨울학기 학생모집

본 기독교 복음선교 연합총회에서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주 교육국의 승인을 받아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를 진리와 경건이란 학훈을 가지고 설립하고 다음과 같이 2015년 겨울학기 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부문

- 1. 신학 대학교 신학과(BA) - 4년 / 126학점
- 2. 신학 대학원
 - 1) M.Div. 교역학 석사 과정 - 3년 / 96학점
 - 2) M.A. 석사과정 - 2년 / 48학점
 - 3) Th.M. 신학 석사 과정 - 2년 / 48학점
 - 4)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3년 / 48학점
 - 5) Th.D. 신학박사 과정 - 3년 / 56학점
- 3. 일반 대학교
 - 1) 선교사 과정 - 2년 / 56학점
 - 2) 평신도 지도자과정 - 1년 / 36학점
 - 3) 평신도 성경학교 - 6개월 / 12학점
 - 4) 채플린 과정 - 소정 과목
 - 5) ESL 과정 - 1년
 - 6) 유치원 교사 및 원장 과정 - 1년
- 4. 홈스쿨링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정과 교육의 문제의 대안으로 크리스찬 홈스쿨링 교육을 전념으로 지원합니다.



- * 이번 학기 등록 학생들에게는 80% 장학금을 드립니다.
- * 기독교 복음 선교 연합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교과 과정 중 50%는 인터넷으로 수업이 가능합니다.
- * 본 학교는 분기별(쿼터제)로 학생을 모집합니다.

가을학기 개강일 : 2015년 9월 21일(월) ~ 11월 27일
 겨울학기 개강일 : 2015년 12월 07일(월) ~ 2월 12일
 봄 학기 개강일 : 2016년 2월 15일(월) ~ 4월 22일
 여름학기 개강일 : 2016년 5월 16일(월) ~ 7월 22일

크리스찬 홈스쿨링은 크리스찬 부모들과 자녀들이 함께 영성과 인성과 지성이 통합적으로 균형 잡힌 성장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성경적인 교육 방식입니다. 미주 크리스찬 신학대학교의 홈스쿨링은 무너진 가정과 교육의 회복을 위해 앞의 본질을 앞세우고 제자도를 실현하기 소망하는 가정들의 결단과 헌신을 격려하며 견고하게 만드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1학년에서 12학년까지 기독교식 홈스쿨링 방식으로 교육학 박사들과 교사들이 전문 지도합니다.

겨울학기 등록 안내 : 2015년 12월 7일 까지 등록 마감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College & Seminary in America (CTCS)
1508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213)999-6884(대표전화), (213)272-6031, (213)235-6889



쉽고 가볍고 재미있는 목회
있을지언데! 그대로 되나리! 죽았더리!
동역자님의 목회는 **주안에서**
됩니다! 잘됩니다! 갈수록 더 잘됩니다!

예수님의 기도학교

그리스도의 장자권과 하나님자녀의 권세누림

낮은 자존감 짙은 **열등의식**으로 **시골 30명목회**가 꿈이었던 이영환목사의
쉽고, 가볍고, 재미있는 목회의 원동력인 핵심 말씀을 정리한
평신도 말씀훈련 교재 **「예수님의 기도학교」**
20개월만에 7,100여명의 목회자님들과 해외 26개국 선교사님들을
만족케한 검증된 세미나

주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역자님들!
지난 1년 8개월동안 한국교회 1천여교회 7,100여명의 목회자님들과 26개국의 선교사님들께서 "장자권"
전국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님들이 펼쳐 가실 목회현장이 **오직말씀, 오직기도, 쉽고가볍고 재미있는 행복복회,**
기쁨과 감사의 열매가 풍성한 목회를 하실 수 있도록 돕고자 하여 아래와 같이 [기도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해는 "기도목회"가 해답입니다. "말씀과 기도" 목회만이 본질인데 2016년 새로운 목회를
기도로 준비하시는 이 때에 "기도편 목회자세미나"를 통하여 섬기시는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불처럼 뜨거워지고, 목회자의 영성을 순수하게 처음사랑으로 뜨겁게 유지시키고,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평안한 목회의 복을** 누리고 금번 기도세미나 말씀훈련교재를 통해
"뜨거운 기도와 강력한 말씀의 위력"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강사 이영환 목사

- 한밭제일교회담임
- "목회는 쉽고 가볍고 재미있게"라고 외치는 목회자
- 「그리스도의 장자권과 하나님자녀의 권세누림」의 저자

기도편 목차

- 제 1과 기도, 반드시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따라하라!
- 제 2과 기도, 반드시 초대교회를 배우고 따라하라!
- 제 3과 기도, 할 수 있는 대로 자주, 오래하는 습관을 가지라!
- 제 4과 기도, 할 수 있는 대로 크게 부르짖으라!
- 제 5과 기도, 할 수 있는 대로 깊고 은밀하게 하라!
- 제 6과 기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하라!
- 제 7과 기도, 반드시 말씀에 근거해서 하라!
- 제 8과 기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 제 9과 기도, 영적 전투의 최전방이다!
- 제 10과 기도, 영적 전투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 제 11과 기도, 하늘나라에서 VIP로 취급됨을 주목하라!
- 제 12과 기도, 믿음의 절대 파워다!
- 제 13과 기도, 모든 문제의 완전 해답이다!
- 제 14과 기도, 인생 역전의 지름길이다!
- 제 15과 기도, 사랑의 대화임을 잊지 말라!
- 제 16과 기도, 사명 승리의 유일한 길이다!
- 제 17과 기도, 반드시 먼저 회개를 동반하라!
- 제 18과 기도, 반드시 응답된다는 믿음을 가지라!
- 제 19과 기도, 야곱처럼 포기하지 말고 강청하라!
- 제 20과 기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강청하라!

「그리스도의 장자권과 하나님자녀의 권세누림」 2016 미주목회자 "기도편" 장자권 세미나 일정안내

일 시 : 2016년 2월 29일 (월) - 3월 2일 (수)

* 구체적인 일정은 홈페이지에 일정표를 확인해주세요.

강 사 : 이영환 목사 (한밭제일교회 담임)

장 소 : UBM교회 (1531 S. Sinclair St. Anaheim, CA 92806)

등록비 : \$ 100.00

* 주교재와 세미나 기간동안의 식사는 등록비에 포함되어 함께 제공됩니다.

* 목회자 부부로 등록하실 경우, 등록비는 동일합니다. (목회자부부 2인 : \$ 100.00)

[등록방법] 인터넷 : UBMCHURCH.COM

전 화 : 714-634-8360

문 의 : 714-634-8360 / 714-331-1755

714-501-1337

이메일 : USA.SONSHIP@GMAIL.COM

주 최 : 미주 장자권 세미나본부

협 찬 : PIXELL GRAPHICS / JP Toner & Ink Service

혹서와 혹한의 통증

최근 필리핀에 다녀오게 되었는데, 그곳은 계절이 겨울이지만 한낮에는 35도까지 올라가는 무더운 날씨였다. 돌아오는 날 한국의 기온은 체감온도가 영하 30도였다. 며칠 사이에 혹서와 혹한을 오가면서, 내 몸은 적응을 하지 못하고 무너졌다.

처음엔 가벼운 몸살기로 시작하다가 온몸이 통증으로 뒤덮이고, 기관지염으로 가더니 순식간에 폐렴 직전까지 진행되었다. 병원 치료를 두 주간이나 받고서야 호전되었다.

이 경험은 신체의 면역력을 잃게 만드는 급격한 외부 기온 변화의 무서움을 알게 했다. 또한 혹서와 혹한의 기온 차이가 이토록 심한 신체의 병증을 불러일으킨다는 것과, 마음도 그와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성장하는 동안 부모의 양육 태도가 일관성 없이 혹서와 혹한의 감정 변화 속에 진행되었다면,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지 못할 것이다.

병원 치료를 받으며 극심한 통증 속에서 떠오르는 이들이 있었다. 치유의 길에 동행하고 있는 나의 내담자들을 떠올리

며, 아픈 마음을 끌어안고 울고 있는 그들을 더욱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아무리 학대를 가하는 부모라고 해도 24시간 화를 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관찰이 보일 때와 불같이 화를 낼 때가 반복되면, 아이들은 심리적 면역력을 잃어버리고 무너져 내릴 것이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늘 불안에 떨게 될 것이다.

최근 연일 밝혀진 아동 학대의 끔찍한 결말을 보면서 더욱 심란해진다. 부모가 자녀를 때려서 죽이고 사체를 함부로 방치하는 등의 참혹한 일들이 이 땅에서 자행되고 있다.

딸을 죽인 목사 아버지도 있었고, 아들을 죽인 후 냉동실에 보관한 부모도 있었다. 이처럼 학대의 환경은 면역력을 제로로 만든다. 그리고 늘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한다.

이 참혹한 사건들 때문에 너무 슬프다. 자신의 어린 자녀를 때려서 죽인 부모들 역시 처음엔 피해자였을 텐데, 어느 순간 악마가 되어버린 그들의 행태가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아프



강선영 대표
한국상담심리치료센터

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 말인가. 어린 자녀를 죽이고도 태연한 그들의 모습 때문에 더욱 더 슬픔을 느끼게 된다.

자녀를 때리고 학대해서는 안 된다는 의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완전한 인격체이며, 부모는 자녀를 보호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다.

자신의 분노의 감정을 투사하며 자녀를 불안에 떨게 만들어서도 안 된다. 자녀를 훈육한다는 명목하에 얼마나 많은 학대가 자행되었는가. 이 땅의 모든 부모는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한다!

내가 혹서와 혹한을 오가며

심각하게 병이 든 것처럼, 부모의 극심한 감정 기복과 일관성 없는 태도는 마음에 심각한 병이 생기게 한다. 사람의 신체가 기온 차이만으로도 손상을 받는데, 마음은 오죽하겠는가.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연약하고, 쉽게 멎고 상한다.

마음이 아프면 아픔을 느끼지 못하게 하려고 방어기제가 생기고 감정을 눌러 놓거나 차단하기 때문에, 심각하게 손상된 이후에도 사람들은 자신에게 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많다. 그래서 어느 순간 자신은 살아야 할 의미가 없고 죽어야 하는 존재라는 생각이 깊어지고, 병증은 말기로 치닫게 된다.

그래서 몸이 아플 때는 병원으로 쉽게 달려가도, 마음이 아프면 방치하게 된다. 방치된 마음이 병적으로 굳어져, 원래의 자신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죽이는 범죄자로 만들기도 하고 주위 사람들을 괴롭히는 가해자로 만들기도 한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아파만 하다가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다.

이 아픔들이 누군가를 향한

분노가 되어 수많은 사회 문제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자신의 환경이 매일 혹은 매주 혹서와 혹한을 오가지 않았는지 체크해 보길 바란다. 육하는 습관을 가진 어머니 아버지가졌는가. 일관성 없는 부모의 태도로 불안에 떨었는가. 어느 날부터 자꾸 짜증이나 화가 났는가. 슬픔과 외로움이 병적으로 밀려오고 있는가.

자신의 감정을 체화하고 자신이 혹서와 혹한을 오가는 감정의 변화를 겪고 있지 않은지 인식해야 한다. 그래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시스템 속에서 계속해서 분노조절 장애자들이 양산되는데, 이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스스로 깨달으면 가능해진다. 꼭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같이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어서 이 혹한의 계절이 모든 가정에서, 모든 사람들에게서 사라지기를 아주 간절히 기도한다.

반쪽 신학

내 안에 그 목사가 있다'는 그 말이 계속 목에 걸린다. 그게 맞는 말인데, 시원치가 않다. 틀린 말이기 때문이 아니라, 문제에 대한 답이 갖는 신학의 한계 때문이다. 신학을 해도 인성이 부족하고, 인격 없는 신학, 목회가 문제라는 도덕론도 해결 같지가 않다.

양들을 이끌고, 신학을 가르치는 자의 실족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 3:23)를 인용하는 것,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롬 3:10)의 신학으로 돌아가는 것이, 혹시 우리 맘은 편하게 해줄지언정, 그 죽은 소녀에게 해줄 수 있는 책임 있는 설명인지 나는 모르겠다.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초신자도 아닌 분들이 극악한 범죄를 저지를 때 받는 충격을 설명하는 방식이, 그래도 우리는 '예

수 천당, 불신지옥'이라면, 우리의 신학은 교회가 맞닥뜨린 이 시대의 문제를 외면할 뿐 아니라, 계속 반복할 확률, 어둠에 어둠을 더할 확률이 높다.

문제가 나왔는데 답을 못 찾으면, 문제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인용해야 할 성경은 차라리,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됴임인가"(사 5:4)가 아닐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런 충격을 묘사한 말씀이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받으셨을 그런 충격이다.

또 이런 말씀,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벧전 3:16). 누가 부끄러운가. 우리의 선한 양



채영삼 교수
백석대학교

심과 행실로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라는, 이토록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말씀이 인용되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딤후 1:19). 오늘 날의 신학이, 복음이, '거듭난 심령의 회복된 양심'에 대하여 제대로 다루고 말하고 있는가. '인간의 양심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다'만 알지, 그

구원 받은 자의 '회복된 양심'이 야말로 이 땅을 사는 교회의 신앙의 본질적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가.

예수 믿고 천당만 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심령은 회복된 양심으로 살게 되어 있다. 구원은 있는데, 세상 사람들도 알아듣는 '양심'은 버린 신학, 버린 교회, 버린 목자들, 그게 이 시대에 교회가 직면해야 하는 문제 아닌가.

교훈의 목적, 신학의 목적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딤후 1:5)이라고 가르치는 신학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언제까지, 인간의 윤리 도덕의 인과응보의 원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만 알고 있을 것인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

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딤후 2:11-12) 하신다는 것은 왜 버려두는가 말이다.

반쪽 신학을 붙들고 있는 한, 답은 시원치 않을 것이다. 문제는 계속될 것이다. 어렵지만, 예수 믿고 천당 간다는 교회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축복, 성장, 혹은 구원의 확신보다 더 절절하게 가져야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회복된 양심'이다. 믿음은 우리의 죽어있던 '양심'을 회복시킨다.

죽은 시신 앞에서 하는 기도의 기적이 아니라, 회복된 선한 양심이 아이를 살리는 것이다.

구원론이 전부가 아니다. 교회가 이 땅의 제사장 공동체로서, '선한 양심'을 회복해야, 세상도 알아듣는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 믿는다.

반쪽 신학에 만족하는 우리가 결코 되지 말자.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10
최저 1장

복사기 판매
렌탈 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 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칼라
카피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www.fbmcopiers.com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복새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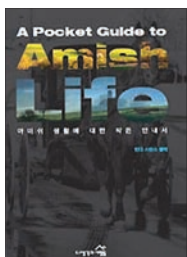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 추천

아미쉬 생활에 대한 작은 안내서
민디 스탠스 클락 | 생각과사람들 | 144쪽

포켓 형태의, 그야말로 '작은 안내서'이다. 지난 수백 년간 북미 지역에서 그 뿌리를 두고 자라고 공동체를 유지해 온 '아미쉬'를 다루고 있다. 왜, 그리고 어쩌서, 21세기 현대를 이러한 구시대적 관습으로 살아가는가를 안내한다. 그들의 삶의 근원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나 삶의 방식들을 파헤치기보다, 당장 이해하기 위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그들의 가치와 예배 등을 주제별로 다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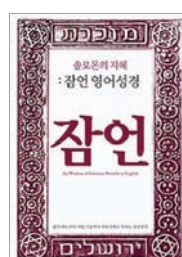
꿈이 나를 살게 한다
남상호 | 라온북 | 240쪽

세 번이나 죽을 결심을 하고 네 번 다시 태어나 새 인생을 사는 주인공의 도전기. 최후의 순간, 당신을 살게 하는 것은 오로지 '꿈' 하나임을 말한다. 한류 문화 콘텐츠 제작으로 주목받는 스타트업 '코이노니아 엔터테인먼트' 대표인 저자가 '이 순간을 견뎌낼 수 있는 용기와 위로'를 전한다. 성공한 기업가가 아니라 '아직' 꿈을 향해 달리고 있는 이야기라 공감할 수 있다.



잠언 영어성경
마이크 황 | Miklish | 200쪽

솔로몬이 남긴 '지혜서', '잠언' 속 구절들을 55개 주제로 모아 영어로 소개한다. 딱딱한 훈계가 아니라 다양한 비유와 예시를 통해 전달한다. 영한대역으로 만들었고, 되도록 영어성경(NKJV)을 직역했지만 의미가 애매한 부분은 원어성경을 참고해, 잠언의 원 뜻을 그대로 파악할 수 있다. 잠언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어휘 100개도 수록했다. 말하기와 쓰기 실력을 키울 수 있다.



주의 것들의 노래
정재현 | 행복미디어 | 708쪽

몇몇 교회사가들에 의해 신비주의자나 이단자 등으로 분류돼 온 이용도 목사에 대한 잘못된 사실들을 합동과 통합의 이단 보고서 검토 등을 통해 탐정처럼 파헤쳐, 독자들이 이용도에 대해 올바르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용도 목사의 평전과 목사집을 출간한 저자는 젊은 이용도 연구가로, 지난 80년간의 오해와 사실관계 오류 및 왜곡 인용을 1차 사료들을 제시하며 반박한다.



REVIEW

구입문의 LA : 조이기독교백화점 T. (213)380-8793
OC : 생명의 말씀사 T. (714)530-2211

“‘사람,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매력”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화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일 대학교 역사학 명예교수인 야로슬라브 펠리칸(Jaroslav Pelikan)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나사렛 예수는 거의 20세기를 이어 온 서양 문화 역사 속에서 가장 두드러진 인물이 되어 왔다. 거의 모든 인종이 그분의 탄생을 기준으로 연대를 표시한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을 걸고 저주하고 또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아인슈타인은 “나는 유대인이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빛나는 모습에 내 마음이 끌린다. 예수님은 미사여구를 늘어놓는 사람들도 다 묘사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분

이시다. 그들에게 아무리 뛰어난 기교가 있다 할지라도 말이다. 누구라도 복음서를 읽게 되면 그 속에서 실제로 예수님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 한 마디 한 마디 속에 그분의 인격이 고동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아인슈타인은 그리스도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없었던 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경이로움을 느꼈다.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이 모든 주목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분이 인격적으로 어떤 분인지 잘 모른다. 그분을 숭배하는 사람들조차 그렇다. <우리 사이를 거닐던 사랑(CUP)>의 저자 폴



우리 사이를 거닐던 사랑 폴 밀러 CUP | 315쪽

밀러는 종종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물어 보았다. “천국에 가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 누구를 만나보고 싶습니까?” 수백 명 중 한

사람 정도가 예수님이라고 대답했다. 아마도 ‘사람’이라는 단어 때문이 아니었나 싶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생각하는 데 별로 익숙하지 않다.
폴 밀러는 그의 저서에서 먼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살펴보았다.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이셨으며, 또 친절하셨다. 보통 친절할 사람은 그리 강하지 못하고, 강한 사람은 또 그리 친절하지 못하다. 그러나 예수님은 능력과 친절을 함께 보여 주셨다고 저자는 말한다.
복음서를 읽는 동안, 폴 밀러는 예수님의 진실하심과 솔직하심에 놀랐다. 예수님이 사람들과 맺으

신 모든 관계 속에는 진실함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예수님은 솔직하지 못한 관계는 투명하지 못하고 의미를 찾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다. 저자는 이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수많은 눈부신 매력을 포착하고, 사랑의 화신인 그분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그리스도, 나에게 그분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을 바르게 알고 이해하도록 돕는 책들은, 우리로 하여금 균형 있고 조화로운 신앙생활을 하도록 돕는 나침반이다.
송광택 목사
한국교회독서문화연구회 대표

히브리어·헬라어

원문 번역 주석 성경 (신약)

번역·주석 **고영민**
(前 백석문화대 총장)

한국 선교
130주년
기념

히브리어·헬라어 성경 원문을 알기 쉽고 정확하게 번역, 전통적인 해석 원리에 의해 성경적으로 주석한 하나님의 말씀

한국 선교 130주년을 기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말로 옮겨 놓은 **聖經 翻譯의 決定版!**
 새 시대, 현대 신앙인을 위해 누구든지 쉽게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오랜 기간 체계적인 기획 하에 출간된 **劃期的 力作!**
한국교회의 신앙과 신학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나갈 성경 주석의 源泉의 寶庫!

본서의 12가지 특징

1. 전통적, 성경적 해석 원리에 의한 주석
2. 성경 해석의 기본 체계를 삼위일체식으로 강해
3. 원문을 축자적으로 정확하게 번역, 수용 언어로 알기 쉽게 전달
4. 신학의 학문성과 주석의 창조성을 최대한으로 높임

5.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를 성경적으로 평가, 결론 내림
6. 구속사의 맥을 따라 원어와 문장 등을 명확하게 설명
7. 성경 시대의 배경들을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들 인용
8. 성경의 기본 자료인 고대 사본들을 세밀하게 비교, 대조

9. 성경 지리와 고고학, 문화, 풍습 등을 현장 답사 경험을 통해 생생하게 묘사
10. 원어와 동어, 반대어, 동음이의어를 상세히 기술
11. 성경 본문을 성경연구와 설교준비를 위해 내용별로 분해
12. 43개 번역본들을 통해 성경의 다양한 번역 가능성을 제시

목회자, 신학생, 성경연구자, 평신도 필독서!

고영민 번역 주석 | 박종규(일간목회) 기획 2,106면
이행규(금란출판사) 발행 값 59,000원

www.qumran.co.kr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6 Tel. 02-747-1004

“무슬림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독교와 이슬람교에 대한 신학적, 특히 ‘실천적’ 대화를 주선한 책



미로슬라브 볼프 교수. ©에일대 홈페이지

한국에서도 점점 무슬림의 수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이슬람교에 대한 담론이 활발해지고 있다. 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로 아랍어를 배우는 학생들도 증가하고 있다. 무슬림을 위한 법률이나 정책도 고려 대상이다. 이 와중에 이슬람교에 대한 책들이 조금씩 한국어로 번역되고 있는데, 기독교와 이슬람교에 대한 신학적, 특히 ‘실천적’ 대화를 주선한 책은 미로슬라브 볼프의 것이 아마 처음인 듯하다. 그동안 기독교 출판계는 주로 마크 가브리엘 같은 극단적 개종자의 책이나 소위 ‘이슬람 선교 전략’만을 번역, 출판해 왔는데, 이번 IVP 출판사의 「알라(IVP)」 출간 결정은 이슬람교에 대해 막연한 인상만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의의가 있다. 볼프는 탁월한 신학자다. 삼위일체에 대한 그의 이해는 전통적이며 동시에 신학적 깊이도 있다. 사실 그는 이미 앞서 「삼위일체와 교회(사물결플러스)」라는 훌륭한 책을 썼다. 그리고 그 책에서 삼위일체론 이해에 있어 각 종파마다 본질적 차이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에서도 점점 무슬림의 수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이슬람교에 대한 담론이 활발해지고 있다. 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로 아랍어를 배우는 학생들도 증가하고 있다. 무슬림을 위한 법률이나 정책도 고려 대상이다. 이 와중에 이슬람교에 대한 책들이 조금씩 한국어로 번역되고 있는데, 기독교와 이슬람교에 대한 신학적, 특히 ‘실천적’ 대화를 주선한 책은 미로슬라브 볼프의 것이 아마 처음인 듯하다. 그동안 기독교 출판계는 주로 마크 가브리엘 같은 극단적 개종자의 책이나 소위 ‘이슬람 선교 전략’만을 번역, 출판해 왔는데, 이번 IVP 출판사의 「알라(IVP)」 출간 결정은 이슬람교에 대해 막연한 인상만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의의가 있다. 볼프는 탁월한 신학자다. 삼위일체에 대한 그의 이해는 전통적이며 동시에 신학적 깊이도 있다. 사실 그는 이미 앞서 「삼위일체와 교회(사물결플러스)」라는 훌륭한 책을 썼다. 그리고 그 책에서 삼위일체론 이해에 있어 각 종파마다 본질적 차이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나눔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재고해 보기를 권한다(25쪽).”

그리고 이러한 볼프의 논지는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와 이슬람 간 진행되기에 더욱 적절하다. 그런데 왜 그는 굳이 기독교와 이슬람과의 대화를 먼저 진행시켰을까? 단순히 그가 기독교 신학자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는 스스로를 정치신학자라 밝힌다. 세계 종교 분쟁의 가장 큰 화두는 기독교 대 이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시급한 것이다. 나아가 그가 공통점에 집중하는 이유는 실제로 이를 통해 어떤 신학적 신론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양자 간 종교 폭력 및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여기서 우리는 볼프의 최우선 관심사가 무엇인지 느낄 수 있다. 어린 시절부터 겪었던 전쟁에 대한 경험이나 신학 연구 여정에 있어 위트겐 몰트만과의 만남 등은 그의 최우선적 신

나 폭력 행사는 결코 있어선 안 된다 는 것이다. 왜냐하면 참된 유일신앙을 가진 이에게 그것은 제대로 된 종교적 실천,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필자는 볼프의 기획 방향성에 대해, 그리고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첫째, 신학 내용의 우선순위에 대해, 그의 선택과 취급 방식에 아쉬움을 느낀다. 그가 뒤로 제쳐 놓은 예수에 대한 신앙고백은, 신성모독 및 구원이라는 측면 때문에 마냥 뒤로 빼 놓기엔 너무 중요하다. 삼위일체 교리도 예수 때문에 개발되어야 했다. 볼프가 주장한 대로(제임스 던에 의존하여) 초기 그리스도인은 그 스스로가 ‘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기에 유대교와 동일한 신을 섬긴 것은 맞지만, 그 분열에 예수라는 존재가 있었기에 그 둘은 갈라 서야 했다.

글 서두에서 필자가 말한 그 무슬림은, 그리스도인(그는 계속 가톨릭이라 표현했지만) 예수 부활 신앙에 대해 존중한다는 표현까지 했다. 그가 삼위일체를 다루면서 한 분성과 세 위격에서 멈추지 말고, 예수에 대한 내용까지 다루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떨칠 수 없었다. 물론, 앞서 얘기했듯 그것이 그의 전략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인을 설득하기보다 더욱 경계하게 만든 것은 아닐까?

둘째, 정치적 기획의 완성은 선교의 문제로까지 확장될 필요가 있다. 이슬람 선교에 대해 필자는 아는 바가 없다. 그러나 기독교 선교의 목표는 대체로 그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다.

기독교가 가장 큰 관심사로 삼는 것 중 하나인 ‘인간의 운명’에 대해 그가 밝히고 선교에 대해 조금 더 분명하게 말하지 않는 이상, 대다수 그리스도인의 타종교인에 대한 접근은 개종을 목표로 할 것이다. 인간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고, 즉 비그리스도인으로 생을 마감한다면 그 사람은 생명의 부활이 아닌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할 것이라는 불안은 개종을 목표로 삼는 선교를 멈출 수 없게

하며, 따라서 어떤 법률적 장치나 윤리 또는 사회적 인식이 공유될지라도, 소위 종교 근본주의자들을 끊임 없이 양산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의 그의 논지 전개는 너무하다는 생각까지 든다.

“많은 기독교인들과 무슬림은 영원한 구원에 관심이 많다. 그들은 같은 신을 믿는 것이 곧 영원한 운명이 같음을 의미하는지 궁금해할 것이다. ‘꼭 그렇지는 않다’는 짧은 대답이 부적절할 수 있지만, 시간상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 같다. 이 사안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 책은 영원한 구원 즉 그것이 ‘순금으로 되어(계 21:18)’ 있는 도시인지, ‘강이 흐르는 아래의 동산(알-바카라 2:25)’인지에 관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나의 관심은 보다 현세적인 것, 곧 이 세상에서의 기독교인과 무슬림의 공존에 있다(247-248쪽).”

개종을 목표로 삼는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는 종교인은, 안타깝게도 소수 근본주의자들만이 아니다. 폭력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지 않을 뿐, 생각보다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이러한 ‘개종’을 여전히 선교의 목표로 삼는다. 볼프가 어찌 생각하든, 대부분의 복음주의자에겐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의 현세적 기획은 이 ‘영원한 문제’를 다룰 때, 보다 현실성을 띠 수 있다고 필자는 평가한다.

물론 그 기획은 결코 ‘1년의 안식년(집필 기간)’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슬람에 대해 막연하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이슬람화’를 ‘악마화’와 동일시하는 그리스도인이 많다. 그러나 무슬림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이며 사랑해야 할 대상이다.

필자는 볼프의 「알라」를 통해 모든 그리스도인이 긴 세월 지리적·정치적·역사적 갈등으로 같은 신을 따르면서도 서로를 적으로 노려보던 십자군 전쟁의 과오를 이젠 반성하고, 우리 신앙에 대해 무슬림에게 평화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마음을, 진정으로 상대를 사랑할 수 있는 열린 자세로 무슬림들에게 다가갈 바란다.

진규선 목사
서평가 · 번역가



알라
미로슬라브 볼프
IVP | 416쪽

학 과제가 ‘이 땅에서 폭력을 몰아내고 공공선을 이루는 것’임을 짐작하게 해 주며, 그것은 본서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난다.

물론 볼프가 말하는 ‘최우선적 과제’가 모든 종교인들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실제 한국은 어느 정도 볼프가 지향하는 국가의 모습일 수 있다. 모든 종교가 공존하지만 국가는 어느 종교에 대해서도 편향성을 갖지 못한다. 그러나 여전히 종교 분쟁이 있는 세계의 모습에서 볼 때,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보수적 기독교의 선교활동은 긴장을 증가시키기 충분하기에, 여전히 이 책의 비판을 들어야 할 대상임은 분명하다.

볼프의 정치적 이상은 간단하다. 모든 종교인은 국가에게서 자유로워야 하며, 나아가 종교 간 개종 강요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도운동중심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코더명당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대리점 모집

젊게 하는 세제 "에미나"

우리 가정에서 생활세제는 20가지가 넘습니다. 대부분이 화학세제로서 아토피, 알레르기, 피부질환의 원인이 되고,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이 화학세제를 친환경, 무공해, 항산화 효소세제인 “에미나”가 이제 대신합니다.

일본에서 토양 속의 이로운 균을 이용하여 효소로 제조된 “에미나”는 세탁, 설거지, 화장실, 욕조, 마루, 생활 용품, 세차, 어항, 냄새제거, 목욕, 양치질, 애완동물 관리, 화초, 텃밭가꾸기에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 무공해 친환경 세제입니다. “에미나”는 세제구입 비용과 물을 절약 할 뿐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세제입니다.

식당 화장실 냄새제거 특효
“에미나” 스프레이 하시면 어떤 냄새든지 쉽게 없어집니다. 손님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지독한 식당의 화장실 냄새가 없어지지 않으면 환복해 드립니다.

【가정 필수 제품: 밥줄】
밥 지을 때 밥줄에 두면 밥맛이 좋아지고, 24시간 후에도 밥의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다.

【생활 필수 제품: 생생 팩】
생생 비닐팩에 채소, 과일 등을 보관하면 20일이 지나도 생생합니다.

Yirrh Healthy Living Co. 이레 건강 Tel: (323) 316-6815
833 S. Western Ave. #15 L.A, CA 90005 (로테오 갤러리아)

- 사용 효과**
- 세탁: 적은 양으로 화학 물질을 없애 주고, 유연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세탁물의 냄새가 없고, 보송보송한 건강에 도움을 주는 옷으로 만들어 줍니다. (아토피, 피부병, 상처 등)
 - 청소: (스팀 청소기, 걸레 등)에 사용하시면 냄새를 없애주고 마루, 가구, 가전제품, 세차 시 윤이 나고 먼지가 잘 붙지 않습니다.
 - 설거지: 기름기, 탄 것이 잘 제거되고 행금을 적게 하여 물이 절약됩니다. 그리고 설거지 한 물은 배수구를 청소할 뿐 아니라 식물에 주면 좋은 토양을 만들어 줍니다. 설거지, 청소할 때 고무장갑을 끼지 않아도 되고, 맨손으로 하면 피부가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잘됩니다.
 - 집안(가구, 이불, 커튼 등), 차, 사무실에 뿌리면 집안의 공기가 깨끗해지고, 친환경(곰팡이, 화학물질, 갈마 방사선 절감 등)으로 인해 호흡기 질환, 비염 등에 좋습니다.
 - 냄새 제거: 화장실, 애완동물, 신발, 등에 뿌리면 냄새가 없어집니다.
 - 애완동물: 목욕시킬 때 행금을 철저히 하지 않아서 쉽고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어항의 수질이 변하지 않아 냄새가 없습니다.
 - 농작물, 화초 재배: 비누기루를 땅에 뿌리거나, 작물에 스프레이하거나, 세탁, 설거지 한 물을 주면 토양을 바꾸어 무공해 농작물을 재배할 뿐 아니라 병충해(진딧물)가 없고 성장이 좋아 질 좋은 작물을 많이 생산합니다. 고추 작물을 사람 키보다 크게, 해바라기를 4m 정도 키울 수 있습니다.
 - 과일, 야채 씻을 때 사용하시면 농약을 분해하며, 항산화 작용으로 신선함이 오래가고, 꽃에 뿌리면 오랫동안 시들지 않습니다.
 - 양치질 할 때 극소량을 치약에 발라 사용을 하면 입안과 치아가 깨끗해지나 먹지는 마십시오.
 - 차의 에어컨 필터에 뿌리면 성능이 좋아지고, 집안이나 방청고의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 활성산소 제거, 정전기 방지, 신선도 유지, 에너지 절감, 해충기피, 습도조절, 결로 곰팡이 방지 효과가 있습니다.
- 사용 방법**
- 세탁 시에는 세탁기(40리터)에 3~5g(티스푼 1개는 5g) 정도 넣은 후 세탁, 담가 두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 집안 청소 시(냄새, 모기, 파리 제거 등) 물의 1/1000 량으로 뿌려 주시면 됩니다.
 - 작물에 뿌릴(스프레이) 시 1/5,000~1/10,000 정도로 1주에 한두 번 정도, 나무는 2g 정도 땅에 묻어 주면 더 좋고, 시들은 채소, 화초는 3일 정도, 나무는 2달 정도에 효과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양을 사용 하시면 식물이 마를 수가 있습니다.
 - 아토피 피부 1/1000 정도, 아기 목욕 시에는 1/10,000 정도로 희석하여 사용합니다.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Family 자동차 \$중고차 최고가 매입\$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주님미디어닷컴 전도용품 및 배너 할인행사

오픈 기념
CD Printing * Papersleeve=\$300
완성배너 스탠드포함 \$65 (할리슈팅 제외한 전 품목 Free Shipping!!!)

미디어선교에 앞장서는 탐미미디어에서 귀 교회와 성도님들의 사역과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성기기 위해 기독교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주님미디어닷컴을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보다 편리한 구매와 저렴한 가격, 세련된 디자인으로 귀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참가하시는 사역과 사업을 성기도록 하였습니다.

junimedia@gmail.com
Call : 323.265.0244

CD,DVD 제작전문, 각종 인쇄, 현수막, 각종 서신(심내외), 제책, 연속물인쇄 전문
junimedia.com

전도후계 준비를 위한 전도용품, 새가족 선물용시디앨범

1. 전도용품 세팅 **맞춤형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2. 전도용 실교서디 **소량도 제작가능합니다.**

3. 새가족 및 방문자 선물용 찬양, 실교서디앨범

전도대장지 또는 방문자에게 교회를 알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4. 각종 배너 **모든 사이즈 제작 가능합니다!**

5. 완성배너 (스탠드 포함 \$65) **Free Shipping!**

전도용품 1,000set(\$180) 고급양공 실교서 1set에 10개가 들어 있습니다.

전도엽서

각종행사용품 및 전도용품, 선물용품에 구비되어 있으나 불사역으로 발송하시는 데에 따라 양의 증감 및 양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10% 할인

✓트랜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툽업정비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BOOK BINDING
DIGITAL PRINTING
BANNER / BOARD
FLYER / BROCHURES
BUSINESS CARDS
BOOKLETS

책자제본
디지털
인쇄전문

EXCELPRINTING 213.383.7733

2500 W. 8th St. #100, 101 Los Angeles, CA 90057

100% 천연성분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항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미국 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Special Price

PRO-Z USA Inc. 213.434.1170

미국 공식 판매처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현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제 2의 심장 "발" [카이로메아]

CHIROMEIA

발에 대한 무관심으로 깨어진 신체의 내부 장기 및 근 골격계를 이제는 카이로메아로...

인체공학작설계

척추에 미치는 중력을 3방향으로 분산 : 디스크, 관절염 등 척추질환 예방
지속적으로 용천혈을 자극함으로 기력 증진

카이로메아를 착용하셔야 할 분

조금만 걸어도 힘이 없거나 발바닥, 뒤꿈치, 무릎 및 허리가 아프다.
발바닥 또는 특정 발가락에 티눈, 굳은살이 생기거나 신경이 압박을 받는다.
성장기 어린이의 기형적 걸음걸이의 균형과 성장 촉진이 필요하다.

사용방법

남여 구분없이 표준화 되었습니다
대(L)9 1/2 이상, 중(M)9-6 1/2, 소(S)6 1/2이하

가루간장

SOY SAUCE POWDER

SOY SAUCE POWDER는 유전인자를 변형하지 않은 콩으로만 만듭니다.

콩이 95% 들어 있어 영양분이 풍부
No 방부제, No 화학조미료 안심!

국제 건강 가족 동호회 Tel(213)382-9714, 382-2827
Fax(213)382-2405 244 S. Oxford Ave., No. 2, LA, CA 90004

골든씰

Golden Seal

천연항생제

골든씰은 약초중의 약초로서 (KING OF KINGS)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약초들 중에서 가장 놀라운 약효를 지녔다. 항생제가 필요한 모든 경우에 사용하며 감기몸살, 폐렴, 신종플루, 독감예방, 위장질환, 간염, 간경화, 중이염, 방광염, 습진, 백선 등 각종 염증 피부질환에도 좋음. 특히 마약 중독성에 최고의 해독제로도 알려져 있다.

CHARCOAL

숯가루와 질병 격음

알레르기, 아토피성피부염, 습진에 숯가루 적용
차콜은 인체내의 독성 성분을 제거
가정 상비 식품 필수!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5라인 8회 \$999

치아미백 3달분 \$60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배 빠는 속변역!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지독한 비듬, 두피염증, 가려움증, 탈모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혈관 청소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 (자궁축, 하혈)
- 우울증
- 관절염
- 원형탈모
- 만성두통, 요통

영선한의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한국어: 213.380.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 토 10시~2시

win HYUNDAI CARSON

원현대 칼슨 HYUNDAI

2015 현대 소나타/엘란트라 리스스페셜

0% APR, No Payments for 90 Days!

Sonata 98\$/Month(3 Yrs.) Elantra 88\$/Month(3 Yrs.)

2015 Hyundai Sonata & 2015 Hyundai Elantra

www.winhyundaicarson.com

한인타운에서 15분에서 20분거리

브로커 환영

현대차를 원하시는 당신께 최고의 가격을 제공하겠습니다!!

주말에도 오픈합니다.

유학생, 상사 주재원 도와드립니다. Bad Credit, No Credit 연락주세요. 미 서부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딜러

Korean Pastor Rises in the Ranks of the PCUSA

BY BRIAN KIM, RACHAEL LEE

Reverend James Kwon, the senior pastor of Community Church of Seattle, was inaugurated as the next moderator of presbytery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 (PCUSA)'s Northwest Coast Presbytery. This makes Kwon the first Korean American to serve as the moderator of this presbytery's history.

Kwon was warmly welcomed and unanimously voted into the role as the moderator-elect by some 140 pastors and ruling elders of Northwest Coast Presbytery in October of 2014, and was inaugurated into the position of moderator at the recent presbytery meeting that took place on Thursday at Cascade View Presbyterian Church in Everett, WA.

"I decided to run for the position because I believed that it is now time for the Korean church to no longer remain within their own congregations, but come forward to positively influence the denomination," Kwon said.

He added that he is thankful that this opportunity has been given to him, as he "often wondered how the color of the Korean church — our focus on the truth of the Word, and our spirituality — could be shared with the greater American church community."

"I hope to cast vision on how the denomination could move forward in accordance with God's word," Kwon continued. "I will continue to do my best and to do my part to help bring spiritual restoration of the country."

As the moderator, Kwon will be moderating the presbytery's meetings, as members share different thoughts and opinions on the issues at hand, and will also be



Pastors and ruling elders of Northwest Coast Presbytery prayed for Rev. James Kwon as he was inaugurated on February 11.

invited to lead significant events within the presbytery such as ordinations.

In addition to his election as the moderator of the presbytery, Kwon was also elected to be one of the presbytery's commissioners to the general assembly of the denomination. Northwest Coast Presbytery sends four commissioners to the general assembly -- a national PCUSA gathering that takes place every two years -- to discern God's will and follow where God leads, according to Corey Schlosser-Hall, the executive presbyter of Northwest Coast Presbytery. Kwon will also be voting on proposals and overtures to the denomination's bylaws at the general assembly, which he will be attending this year and in 2018.

"James is the pastor of an absolutely remarkable congregation," said Schlosser-Hall. "In his role as a pastor, he has led an absolutely

stunning transformation of that congregation, from a stable, more traditional first generation Korean congregation, to a much larger, mission-oriented, service-oriented, proactive, visionary congregation."

"James' vision, his leadership of his own congregation, his remarkable personality -- which is also embedded into the congregational identity -- are all qualities that draw people to him," Schlosser-Hall continued.

Schlosser-Hall went on to emphasize the significance of Kwon being Korean American and taking on the two leadership roles of moderator and commissioner.

"We're so grateful that James has enough courage to serve the body in English, even though it's his second language," Schlosser-Hall said. Kwon's taking on of these roles also reflects the "influence, leadership, and appreciation

for Korean American Christianity in the life of the presbytery," he added, explaining that 25 to 30 percent of the presbytery's 10,000 some members consist of Korean Americans.

"We think it's absolutely essential to be a body of Christ that reflects and exhibits the kingdom of God, to listen to and be led by people who have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he continued. "It's a kingdom of God moment for this to happen. It's beautiful."

Northwest Coast Presbytery presides over congregations from Snohomish (located north of Seattle), the southern side of Alaska, and central and eastern parts of Washington state. The presbytery is known within the denomination to be one that is active in missions. Kwon will be serving as the moderator of the presbytery for one year, after which he will be serving on the presbytery's executive board.

Strategist and Pastor Discuss Elements of Leadership

BY RACHAEL LEE

Blab, podcasting, EQ, and dialogue. It's a seemingly random collection of words and topics, but somehow they all came up during a discussion about none other than: leadership.

DJ Chuang, a strategy consultant for churches and ministries, spoke with Pastor Eddie Park of EvFree Fullerton Church in a podcast released online on February 8 for NexGen Pastors' Fellowship, a network of Asian American pastors. The two's conversations focused mostly on three main topics: podcasting; an application called 'Blab'; and being an empty-nester parent. But the conversation was rather free-flowing and also dabbled into other topics as both Chuang and Park shared their passions for leadership and new ways to engage people.

Some aspects to developing leadership involve internal factors, such as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lf-awareness.

"I thought you just have to be super confident," said Park regarding leadership. "I thought I needed another degree, get more Bible knowledge. But ... the game-changer was the EQ -- the emotional intelligence -- how to empathize with people."

"Another factor is the 'PQ': the measure and quotient of your self-awareness," Park added. "This was revolutionary to my leadership experience."

"What's ironic is that there are great pastors who don't have self-awareness," Chuang said. "And the unaddressed issues come out sideways, resulting in a lot of collateral damage, such as broken relationships or scandals."

On the more technological side, Chuang added that using digital platforms such as podcasts and 'Blab' could be useful tools for leadership.

Podcasts give the content creators creative freedom, and allows people to present themselves in an authentic way, Chuang said. With the rise of smartphones and the introduction of internet-friendly cars, Chuang said that podcasts have increasing potential for influence and greater consumption in the future.

'Blab' is another platform that pastors and Christian leaders could use to communicate on a broader scale, Chuang added. It's a video chat platform that allows up to four people to converse together through their smartphones, while simultaneously livestreaming their video conversation and having a recording of it available for more than 24 hours.

A platform like Blab is significant because an unlimited amount of people could listen to a conversation, rather than a monologue, according to Chuang.

"Christianity, historically, has been good with monologue -- preaching and teaching," Chuang explained. "But the next generation knows the value of conversation."

This podcast is the fourth one published by NexGen Pastors' Fellowship, and has introduced guests such as Gary Lindblad, dean of the business school at Biola University; David Kinnaman, president of the Barna Group; and Mike Erre, former lead pastor of EvFree Fullerton Church and teaching pastor at Rockharbor Church.

Seminar Discusses Wedding and Marriage Life, with a Talk Show Flavor

BY RACHAEL LEE

What are some of the practical and spiritual aspects that a couple should consider about their wedding? About their marriage life? About starting their own family?

These were among the questions that were explored during a recent marriage seminar that took place at Hana Christian Center. Unlike most seminars that are structured in a lecture-like format, this seminar was carried out more like a talk show, with a host who moderated the program and interviewed several speakers, including missionary and pastor Young Taek Yoo, and wedding coordinator Esther Kim of My Bride Story.

This marriage seminar -- which took place on Valentine's Day -- actually comes as the first in a series of seminars that Pastor Jonathan Lee of Hana Christian Center is planning on organizing, all centered around the theme of family.

"I'm actually very passionate about ministry with youth," Lee said. "But the key to youth ministry is the family, and promoting healthy families. That's how I de-

ecided to start this family project series."

Pastor Young Taek Yoo shared mostly about marriage life, and the lessons he learned about having a healthy relationship with his spouse.

"Love is commitment," Yoo said when asked what 'love' means for him. "It's serving the other person, and sacrificing your own desires."

Yoo, who often does marital counseling, shared that couples who decide to get married in hopes to fill their own desires or needs often find themselves disappointed in their marriage lives.

"The Bible describes the union that comes from marriage as first a departure. But I think this departure is not only from the parents, but also a departure from your own desires and preferences," Yoo said.

"And I think couples who are preparing to get married need to prepare themselves to become independent, to be willing to take on responsibility, and to leave behind their own preferences," he added.

As a wedding planner who has coordinated over 200 weddings,



A seminar / talk show on marriage took place at Hana Christian Center on Feb. 14.

Esther Kim focused more on the wedding day itself. When asked what she believes is significant about a wedding, she said, "The wedding day is the time to show gratitude to those who have loved and supported you."

She went on to share practical aspects to consider for the event. For example, Kim said, she wouldn't recommend having long programs for the wedding as it loses the attention of the attendees. Even having too many worship songs during the wedding could work against the intention,

she said.

Kim advised couples to focus on one or two most important aspects for the wedding day and be willing to "let everything else go and enjoy the day."

"No wedding is going to be perfect," she said.

"Time goes by very fast on the day of," she explained. "I would recommend the couple to just start the morning with prayer, and just enjoy the day."

Pastor Jonathan Lee moderated the last portion of the seminar, during which he asked three young couples their opinions on the most important aspects of the wedding day, of marriage life, and of having healthy families.

One shared that communication between the couple, and among the family is important to maintain the health of the family. Another shared that sharing the same values and beliefs, and being able to compromise and sacrifice is most important.

Lee emphasized that dreaming together as a family is important.

"Dream together on how you as a family could live happily, and how you can together live for God's kingdom," Lee said.



Esther Kim (left), Young Taek Yoo (center), and Jonathan Lee (right) were the main speakers at the recent seminar.

Local Churches and Ministries

Christianity Daily
A ministry through journalism

For questions about advertising and donations
T.(213)739-0403 F.(213)402-5136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to Young Adults): 7:30 PM

PASTOR JAMES KWA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Broadway Campus Sunday Services:
9:45 AM, 11:15 AM, 12:45 PM
Jefferson Campus Sunday Services:
9:30 AM, 11:30 AM

PASTOR MICHAEL LEE

Young Nak Celebration Church

Broadway: 1721 North Broadway, LA, CA 90031
Jefferson: 150 W. Jefferson Blvd., LA, CA 90007
T. (323) 227-1414 / www.ynclca.org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urch.org

PH
PuenteHillsHyundai
SUPER STORE

72개월까지
0%이자가능

소비자 만족도 서부지역 1위 • 미국에서 가장 큰 단일 현대 딜러 • 미국에서 에쿠스를 가장 많이 파는 딜러!

PRESIDENTS DAY SALE

NEW
2016 HYUNDAI
ELANTRA SE

Lease It For **\$58** +Tax

All In Stock With
MSRP \$19,375

36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Signing, \$3,000 Lease Cash, \$500 Competitive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THE EXCITING APPEAL OF ELANTRA SPORT"

JUST ARRIVED

Get Better Deal On
2016 Hyundai
Find Out Why!!

NEW
2015 HYUNDAI
SONATA LIMITED
With Ultimate
Technology Pkg

Lease It For **\$88** +Tax

All In Stock With
MSRP \$32,730

"DESIGN RENEWED BY INNOVATION"
Panoramic Sunroof, Navigation System W. 8" Touch Screen
Integrated Memory System For Driver Seat & Side Mirror & More!!



36 Months Closed End Lease, \$5,999 Due At Signing, \$4,000 Lease Cash, \$500 Lease Loyalty Cash,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NEW
2016 HYUNDAI
EQUUS SIGNATURE

Lease It For **\$399** +Tax

All In Stock With
MSRP \$62,450

36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Lease Signing, Lease Cash \$8,500, Competitive Owner Coupon \$1,5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Grad Rebate \$400,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A PERFORMANCE VEHICLE WRAPPED IN LUXURY"

NEW
2015 HYUNDAI
GENESIS SEDAN 5.0L V8 Engine

Lease It For **\$299** +Tax

All In Stock With
MSRP \$52,705

36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Lease Signing, Lease Cash \$4,250, Competitive Owner Coupon \$1,5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Grad Rebate \$400,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It's an honor to be nominated 2015 North American Car Of The Year Finalist"



찰리 정
626.513.4981



스티브 장
626.723.3336



저스틴 길
626.723.3584

HYUNDAI

1-888-644-7114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 available

HYUNDAI
Assurance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